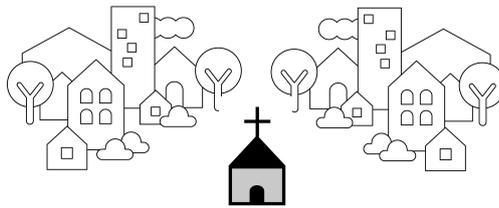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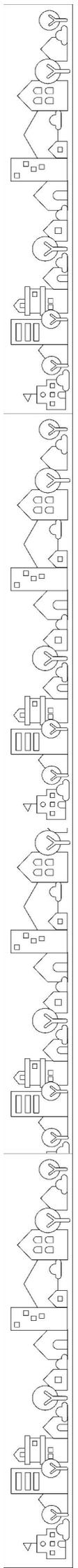
제 8 회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교회, 다시 보기-



-
- 일시 | 2013년 10월 20일(주일)
 - _주일 연합예배 11:00~12:20
 - _점심시간 및 상담/부스운영 12:20~14:00
 - _주제별 대화시간 14:00~16:00
 - 장소 | 인천 구월여자중학교 3층 강당, 4층 교실
 - 주관 | 더함공동체교회(www.withplus.org)
 - 주최 | 개혁교회네트워크(cafe.daum.net/reformingchurch)
-



“더불어 함께하는 건강한 작은 교회의 꿈!”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 개혁신교회네트워크

자료집 목차

인사말		_오재은 장로 <small>개혁교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small>	p.1
행사일정		_예배순서, 주제별 강의	p.2
악보		_예배 중 찬양	p.4
예배설교_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_한완상 장로 <small>새길교회</small>	p.6
발제문01_돈에 갇힌 교회, 성공에 매인 성도		_박득훈 목사 <small>새맘교회</small>	p.11
발제문02_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_신홍식 장로 <small>언택교회</small>	p.28
발제문03_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보편적 가치		_최우돈 장로 <small>너머서교회</small>	p.31
발제문04_‘The 작은교회’로 분립하기		_황영수 집사 <small>예인교회</small>	p.38
발제문05_수평적 교회 이야기		_김태민 목사 <small>예수촌교회</small>	p.48
발제문06_청년, 교회 개혁을 말하다		_이진오 목사 <small>덕함공동체교회</small>	p.59
개혁교회네트워크 소개		_회원교회 및 단체소개	p.61
안내도		_예배장소와 강의실 안내	뒷면

인사말

오재은 | 개혁교회 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언덕교회 장로

“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에 오신 것을

”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고 슬픈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딛는 이 걸음은 한국교회 개혁을 진일보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개 교회주의를 극복하는 노력과
공교회 확산을 실천하는 경주를 다해 간다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을 깨울 수 있는 동기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회복된 주님의 나라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이런 일은 누군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 되십시오.

이 행사를 주관해주신 더함공동체교회에 마음 깊이 감사를 전하고,
참가해 주신 분들과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행 사 일 정

1부 : 연합 주일예배 (오전11:00, 3층 강당)

인도 한진용 장로 다담돌교회

다함께 드리는 찬양		더함공동체교회
찬송	[찬송가208(통246)] 내 주의 나라와	다같이
기도		이영모 장로 <small>예인교회</small>
성경봉독		유인환 목사 <small>장검다리교회</small>
특송	너를 통해서 외 1곡	찬양팀 <small>더함공동체교회</small>
설교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누가복음4:16~19, 로마서12:20~21	한완상 장로 <small>새길교회</small>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		다같이
애찬식		이진오 목사 <small>더함공동체교회</small>
봉헌	[복음송] 우릴 사용하소서	다같이
광고		나종삼 집사 <small>더함공동체교회</small>
축도		박종현 목사 <small>연덕교회</small>

※헌금은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합니다.
※성경은 개역개정, 찬송은 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

-
1. 오늘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좋은 말씀 전해주시는 한완상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2. 점심식사는 1시 50분까지입니다. 식사 후 배식 장소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점심시간 동안 네트워크 회원교회와 단체 홍보 부스가 운영됩니다. (1:00~1:50)
교회문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교회문제상담소 부스를 찾아주세요.
 4. 식사 후에는 주제별 강의 및 토론이 있습니다.(2:00~4:00) 강당 옆 구름다리를 이용해 본관 4층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강의실에는 5분 전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강사, 각 교회 운영위원 등은 본관 4층 복지실에 “교제실” 이 있습니다.
 6. 아이들은 강당에서 놀이를 하겠습니다.
 7. 이곳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입니다. 깨끗이 사용해 주세요.
-

2부 : 주제별 대화시간 (오후2:00, 본관 4층 각 교실)

주제/발제자/장소

01_돈에 갇힌 교회, 성공에 매인 성도	발제 박득훈 목사 ^{새맘교회}	학습실2
02_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발제 신흥식 장로 ^{안덕교회}	2-9반
03_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보편적 가치	발제 최우돈 장로 ^{너머서교회}	2-8반
04_‘The 작은교회’로 분립하기	발제 황영수 집사 ^{예인교회}	2-7반
05_수평적 교회 이야기	김태민 목사 ^{예수촌교회}	2-6반
06_청년, 교회 개혁을 말하다	발제 이진오 목사 ^{더함공동체교회}	2-5반

※강사 대기 및 교제실은 본관4층 복지실입니다.
 ※자료집 뒷면의 안내도를 참고하여 이동하시면 됩니다.

(통일 246)

하나님 나라
T. Dwight(1752-1817)
보통으로

내 주의 나라와

I love Thy Kingdom, Lord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가동과 터니라 (딤후 3:15)

208

ST. THOMAS: 6.6.8.6.
A. Williams, 1763

1. 내 주 의 나 라 와 는 주 계 신 성 전 과
2. 내 주 의 나 교 회 와 는 주 천 계 성 과 성 같 아 서
3. 이 교 회 위 하 는 여 러 사 신 교 회 를 사 랑 합 니 다
4. 성 도 들 의 의 교 아 끼 사 보 호 합 하 시 네
5. 하 들 의 영 영 까 지 늘 시 온 때 에 치 다 네 아 멘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아름다와라
우리의 모임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아름다와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존귀한 왕이여 기게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릴 사용하소서

작사, 곡 김영표

우 리 에 겐 소 원 이-하 나 있 네 주 님 다 시 오-실-그 날 까

지 우 리 가 슴 에-새 긴 주 의 십 자 가-사 랑 나 의

교 회 를 - 사 랑 케-하 네 주 의 교 회 를 향 한-우 리 마

음 희 생 과 포 기-와 가 난 과 고 - 난 - 하 물

며 죽 음 조-차-우 름 막 을 수 없 네 우 리 교 회 는-이 땅 의-희

망 교 회 를 교 회 되-게-예 뵈 예 배 되-게-

우 름 사 용 하-소-서-진 정 한 부 흥 의-날-오 늘 임 하 도-록-

- 우 름 사 용 하-소-서-성 령 안-에 예 배 하 리 라-

- 자 유 의-마 음 으 로 사 랑 으-로 사 역 하 리 라-

- 교 회 는 - 생 명 이 니- 교 회 를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한완상 | 새길교회,
전 통일부총리, 대한적십자사 총재

본문말씀 | 누가복음 4:16~19, 롬 12:20~21

눅 4:16_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매

17_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18_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_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롬 12:20_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_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1. 우리 교회 현실과 상황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라는 제목 자체가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그런 교회가 현실에는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이 같은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현실에 절망하면서도 이러한 꿈을 계속 꾸는 것은 그 꿈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복음의 빛이 퇴색해지고, 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못한다 하더라도 갈릴리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결코 버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복음운동이 아니겠습니까! 교회현실에 절망한다는 것이 결코 예수님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계속 바람직한 교회를 절망의 현실에서도 그 꿈을 계속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대와 상황의 징조를 제대로 읽어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의 모습을 적절하게 말하려면, 이 시대, 이 상황의 징후를 먼저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의 전 세계적 변화의 징후, 우리 민족의 비극적 상황, 그리고 한국교회의 문제점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상황에서 절박하게 요청되는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낼 수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세계는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의 그 끝없는 탐욕확장으로 99%의 인생은 1%의 강자들에 의해 부당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의 무한한 탐욕은 시장의 공정거래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면서, 적자생존을 적자필승주의로 나아가게 추동합니다. 비적자, 비표준, 비주류의 아픔은 그 수가 많아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탐욕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해 낼 사명은 국가가 담당해야 합니다. 국가는 공권력의 기둥이기에 시장의 탐욕적 패권주의를 관리하여 다수의 비적자, 비주류, 비표준의 아픔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는 공정한 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 공권력은 그것이 문자 그대로 공공적 권위이기에 신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마저 거대한 시장 앞에 힘을 쓰지 못할 만큼, 시장의 힘에 밀리게 된다면, 그리고 국가권력이 시장권력과 결탁하거나 그것에 종속이 되어버린다면 국민의 고통은 줄어들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더하여 시민세력마저 시장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에 밀려 그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면, 부당한 인간고통, 억울한 민중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 같은 비극적 징후가 21세기 들어와 13년밖에 되지 않은 오늘, 너무나 뚜렷하게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한반도 현실, 우리 민족의 현실은 우리를 더욱 울적하게 합니다. 올해가 정전 60주년입니다. 열전 3년으로 수백만 우리 민족은 이미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휴전된 지 60주년이 되었는데도 우리 민족은 아직도 냉전 대결에 여념이 없습니다. 세계역사상 63년간 동족끼리 열전과 냉전을 치루고 있는 이 비극은 역사상 일찍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정부는 우리 민족을 36년간 부당하고 잔인하게 억압, 착취했던 일본과도 20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일궈냈습니다. 6.25전쟁에서 주적으로 싸웠던 중국과도 39년 만에 수교했습니다. 공산종주국인 소련과도 38년 만에 화해의 수교를 이룩해 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족인 북한과는 아직도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주적으로 심지어 사탄으로 몰아 부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정상적인 비정(非情)한 민족대결이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의 복음은 더욱 그 공공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너무나 억울하게 아파하는 민중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그들에게 치유와 격려를 주는 메시지가 절박하게 요청됩니다.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 곧 복음의 소식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교회가 신나게 전파해 주어야 하는데 딱하게도 한국교회는 그 복음의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더 아리게 하거나 아예 그 고통에 외면하는 일에 적극적인 듯합니다. 그것이 저를 위시한 많은 예수 따르미들을 슬프게 합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에는 기쁜 소식 듣기 힘들며 갈릴리 예수님과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역설적으로 더욱 예수의 몸된 교회, 예수운동의 공동체가 그리워지는 것이지요.

2.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교회

한국교회의 비극을 신학적으로 성찰해 보면 역사의 예수와 부활의 그리스도가 아무 문제없는 것처럼 분리되어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갈릴리 예수의 하나님나라 운동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고 말하기 보단, 예수 운동의 역동성, 감동적 파장을 탈역사화 한다고 해야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활의 그리스도를 충실히 따르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체험했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갖었던 공공적 복음이해와 그 용기 있는 증언과 선포에도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그들이 온갖 고난을 극복해내면서 잔혹한 죽음의 현실에서도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던 그 신앙을 오늘의 한국교회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그 역사 변혁의 힘, 새 질서 창조와 힘, 그리고 그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실존의 힘, 모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그토록 강조하는 ‘복음’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과 현세에서 온갖 세속적 축복을 듬뿍 받아내는 것, 그것을 복음의 진수로 알고 있는 듯합니다. 살아서 넉넉하게 신나게 잘 살다가 죽어서는 천당 가는 것이 예수 복음의 핵심으로 받아드리는 듯합니다. 이를테면 3박자 복음이 그러한 것이지요. 교회규모가 클수록 이 같은 예수복음의 사사화(私事化)와 탈역사화가 잘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서 나 개인도 역사도 세상도 모두 공공적으로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느낄 수도 찾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한국교회 현실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지고 가신 십자가의 신학적 의미, 신앙적 함의가 전달해주는 감동적 깨달음을 찾기 힘듭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갖는 폭발적인 변혁의 힘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당시 권력(로마제국의 권력, 예루살렘 성전의 권력, 헤롯왕의 권력)을 철저한 비폭력의 힘, 곧 사랑의 자기 비움의 힘으로 우아하게 극복해낸 예수님의 그 감동적 실천을 한국교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힘, 탐욕과 독선의 힘을 예수 고난과 예수 죽음이 우아하게 이겨냈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예수의 그 우아한 죽음의 과정을 로마 당국의 사형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이 감동적으로 쏟아낸 ‘항복고백’ 또는 ‘신앙고백’을 한국교회지도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님을 직접 지켜보면서 “진실로 이분이야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한 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백부장(로마제국의 장교)에게 진정한 신은 로마의 황제이어야 하지요, 황제신의 권력으로 갈릴리 청년 예수의 사형을 집행했던

국가 공권력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처형되는 예수님임을 깨닫고 그의 참된 권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 감동의 복음사건을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황제’ 앞에 굽신거리는 듯합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는 예수 복음의 그 힘, 예수운동의 그 힘을 마치 베드로를 위시한 당시 제자들이 한때 이해 못했듯,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영원히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미국의 권력에 결탁하려는 한국적 권력에 무조건 순응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정점이 바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의 클라이맥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점에서 부활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부활로 연결되면서 복음의 동력으로 새로운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와 기독교의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고난과 죽음은 역사적 변혁 사건이면서 동시에 인간 실존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역동적인 영의 힘입니다. 예수 죽음이 단순한 패배의 죽음이 아니지요. 인간, 역사, 구조, 만물을 모두 새롭게 하는 엄청난 힘이지요. 이 힘으로 기독교가 탄생한 것이며, 이 힘은 바로 아바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자기 비움, 자기 지움, 자기 내려놓음의 힘이지요, 그것은 바로 kenosis의 힘(빌 2:5~11)입니다. 그것은 이 같은 사랑, 곧 아바(Abba)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지요 그 힘은 한편으로는 shalom의 열매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의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역사현실은 향상되고 진보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되는 기쁨이 지금 여기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 구조, 역사, 만물이 완벽하게 새롭게 되는 것은 부활의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바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 이뤄낼 미래의 종말론적 완성이지요. 그때 아바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복음의 완성은 구름 위에서가 아니라 이 땅, 이 역사 속에서 놀랍게 이뤄질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의 선교활동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또 다른 감동은 예수 복음의 파격적 과감성입니다. 산위에서 설교를 보면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할 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원수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감동을 보게 됩니다. 원수 사랑으로 원수의 존재를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하는 그 감동 말입니다. 애자무적(愛者無敵)의 효력 말입니다. 여기서 참 평화 만들기가 가능하지요. 원수사랑은 원수 속에 있는 결점은 적게 보면서, 내속에 있는 결점은 크게 보는 일종의 자기 비움의 힘이지요. 5리 가자고 강요하는 원수에게 10리를 가줌으로써 원수와의 관계를 극복해내는 일이기도 하지요.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벗겨줌으로써 (나는 발가벗게 되더라도) 착취자를 친구로 만드는 평화를 세우는 힘이지요. 그 멋진 파격에 우리는 놀랍니다. 특별히 예수의 고난얘기에서 저는 세상 어느 종교 창시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보기 힘든 예수의 자기 비우기(십자가 지기)라는 사랑실천의 숭선수범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가 서른 중턱에 죽을 수밖에 없도록 치열하게 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의 참된 권위는 그 가르침의 깊이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동적인 실천에 있습니다. 가르침의 깊이와 수가 100이라면 그 실천의 치열함은 1000의 수준에 이른다는데 예수의 참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30중턱에 그는 가장 폭력적인 국가 권력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의 죽음은 허무한 끝장이 아니라 감격적 새 역사, 새 질서의 시작일 뿐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계기일 뿐이지요.

나는 이러한 복음의 감동을 느끼게 하는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듣게 되는 그 많은 설교들(라디오와 기독교 TV를 통해)은 대부분 값싼 축복을 이신칭의(以信稱義)의 이름으로 마구 쏟아내는 설교를 들곤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든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든 것에 대한 대안적 메시리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은총을 한번 받고 나면 하나님 심판 때 다시 확인받게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믿게 합니다. 참 편리한 축복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번 무죄선고를 은총으로 받았다는 확신이 결국 개인 윤리적 책임의식뿐만 아니라 역사 변혁적 소명의식마저 가볍게 여기게 하는 폐해를 낳습니다. 무죄선고를 은총으로 받게 된다는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곧 본배정의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성화의 믿음으로 반드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기에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反윤리적, 反역사적 추문들이 끊임없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동적 성화 없는 값싼 칭의 신앙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말지요.

3. 교회조직과 운영차원에서 다니고 싶은 교회 모습 몇 가지

21세기 상황은 모든 조직 지도자들에게 적어도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하나는 밑으로부터의 소통이요 다른 하나는 조직운영과 관리의 투명성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이 두 가지 구조적, 문화적 요청 위에서만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입니다. 그러기에 가정, 회사, 교회, 정부에 이르기까지, 조직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도자는 반드시 이 요청에 창조적으로 적극 대응해야만 훌륭한 지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익단체들도 그러하다면 명분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조직체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교회라는 조직은 세상의 그 어떤 조직체들 보다 밑으로부터의 소통과 투명한 관리에 한층 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까?

규모가 커질수록 교회소통은 일방적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것도 최고 정점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는 지시에 의한 소통이지요. 이것은 진정한 소통이 아니지요. 이것은 위압적 명령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시어 종의 본질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소통은 결코 그러한 상부 명령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권력은 대체로 강대상의 독점에서 구체화됩니다. 그 거룩한 말씀선포대는 담임목사의 전유물이지요. 그 강대상에서 흘러 내리는 메시지는 곧 교회의 모든 소통을 지배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거대해지면 교회는 불가피하게 관료제화(bureaucratization)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이익단체처럼 운영되지요. 그곳에 예수님의 소통은 사라지게 되지요.

조직 투명성은 어떻습니까? 소통구조가 일방적 명령에 따라 움직이게 되면 그 투명성은 훼손되기 쉽습니다. 교회인사와 재정에 있어 투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반드시 안으로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위기는 스캔들이 되어 밖으로 알려지게 되면, 교회는 세상의 능멸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부패촉진제가 되고 세상의 빛이 아니라 어둠의 자식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러 온 것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성찬식 때 교회 안에서 제일 낮은 곳에 있는 교우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洗足)행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교우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목회자를 보고 싶습니다. 가톨릭처럼 고해성사하는 작은 공간 말고 교회 어디서나 교회 밖 어디서나 고해성사보다 더 깊고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나라는 사랑 나라(love-dom)요 섬기는 나라, 곧 종의 나라(servant-dom)이기도 합니다. 교회지체들 중에 가장 연약한 지체들을 가장 따뜻하게 배려하며 그들과 동고(同苦)하는 목회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 같은 투명한 교회, 소통하는 교회, 약자의 발을 씻겨주는 교회가 되려면, 큰 교회를 지향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체로 기억하고 존중해 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만큼 커지게 되면 교회 규모를 은혜롭게 나눔으로써 오히려 널리 확산시켜야 합니다. 교회는 확산되는 것이지 확대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확대되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힘듭니다. 예수님 대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사탄이 들어설 위험이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꾸준히 확산되어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셨을 때 어느 한 장소에 간판 걸고 중심(center)역을 맡게 하지 않으셨듯이 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고통이 있는 현장으로 끊임없이 찾아다니셨습니다. 아픔 있는 곳에 무상치유를 베푸셨고, 구조적 담이 있는 곳에 담을 헐어내는 열린 밥상공동체를 펼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사역, 봉사사역을 교회에서 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메가 처치로 치닫게 되면 그것은 탐욕과 독선의 권력이 지배하는 바벨탑이나 예수를 핍박했던 예루살렘 성전 꼴로 변질이 되기 싶습니다. 흠어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소금의 교회, 빛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은 결코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 확대하는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녹아 없어지되 남들은 썩지 않고 맛나게 하는 것으로 변화시키며, 남들에게 빛을 던져 올곧은 길로 가게 인도하여 그들에게 빛의 힘을 실어 주지요.

저는 1951년 어느 겨울 주일을 잊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김천에서 저희들은 초등학교 교감관사에서 살았습니다. 조그마한 흙벽돌집인데 방이 세 개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는 시집간 누이 빼고도 여덟 명이 나 되었지요. 형제자매들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아주 추운 1월 하순 쫘이던가, 부모님은 교회 다녀오시더니, 저희들 보고 김천역에 나가서 열차꼭대기에서 떨며 남행하는 피난민들 중 가장 딱하게 보이는 가족을 골라 집으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교회는 마침 폐병으로 고생하셨던 젊은 목사님이 목회하셨습니다. 그분은 연대 신과를 졸업한 엘리트 목사였는데, 어려운 교우를 지극히 보살피려 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폐병으로 고생하셨는데도 말입니다. 목사님의 그 날 설교에 크게 감동을 받으신 부모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가 1.4후퇴 때입니다. 김천역에 가니 마침 서울서 피난민들을 가득 실은 기차가 물을 채우느라 쉬고 있었습니다. 피난민들 중에 기침을 심하게 하는 40세 전후의 남자 주변에는 울막졸막한 아이 셋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 가족 다섯 명을 집으로 데려 왔지요. 우리 여덟 형제자매는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더욱 불편했으나 그분들이 곧 떠날 줄 알았는데 근 3개월 추운 겨울을 저희들과 함께 고생했습니다.

나는 그때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적 결단을 지금도 존경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결단을 내리도록 말씀 증언을 해주신 병드신 목사님을 더욱 존경합니다. 마침 우리와 함께 지냈던 그 피난민은 서울의 명문 초등학교의 교감이셨는데 그도 폐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폐병환자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증거로 우리 부모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지요. 그렇게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골 가난한 학교 교감이셨던 아버님과 우리 어머님의 그 실천적 믿음에 저는 오늘도 흐뭇하게 느낍니다. 지금의 한국교회가 모두, 그 때, 그 피난시절의 따뜻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난하지만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진정한 복음의 교회로 말입니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특히 날로 자본주의 시장의 탐욕은 거칠게 치솟으면서 99%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21세기 상황과 이 탐욕을 공정하게 관리해내지 못하는 국가의 형편을 가슴 아프게 염려할 때마다, 예수 복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하는 교회공동체가 더욱더 정의로 와야 하고 더욱더 평화 만들기 에 치열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처럼 스스로를 비우고, 스스로를 내려놓고, 남을 기쁨으로 채워주는 공공적 복음을 실천하는 따뜻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주변에서 찾기가 쉽지 않아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왜 주변에 교회는 이토록 많은데 예수 십자가의 공동체, 예수 부활의 공동체는 눈에 띄지 않는지요. 문득 참으로 가난했고, 춥고 배가 고팠던 1951년 겨울의 저의 시골 교회의 그 따뜻한 모습이 새삼 가슴 시리게 그리워집니다.

돈에 갇힌 교회, 성공에 매인 성도 }

박득훈 목사 | 새삼교회

요즘은 눈에 잘 안 띵니다만 예전엔 이발소그림이란 것이 있었습니다. 유화로 주로 경치를 그린 그림인데 작가들 사이에 개성을 느끼기 어려운 그림들입니다. 나름대로 정성을 기울여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편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발소 그림을 명작에 비유할 순 없겠죠. 예컨대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 같은 그림과 나란히 취급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만일에 누군가 이발소 그림에 낙서를 해서 못쓰게 만들었다면 기분이야 많이 나쁘겠지만 금방 잊어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전시장에 나타나 만종 원작에다 자기 맘대로 붉은 페인트로 화폭에 가득 차도록 X를 써 넣었다고 합시다. 만일 여러분이 그 작품의 현재 소지자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상상이 잘 가질 않겠지요?

저는 교회가 망가지고 부패하는 것은 그런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이요 회심작입니까? 그 작품의 재료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역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재료로 삼아 하나님은 교회라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역장이 무너지는 슬픈 일입니다.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외부의 범인은 맘몬입니다. 내부의 범인은 탐욕입니다. 이 둘이 합작해 교회를 망가뜨리자 교회는 돈에 갇히고 성도는 성공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점에서 그림과 다릅니다. 온전한 회복이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처방을 받아들여 치유의 과정을 거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증상파악

병든 교회가 치유 받으려면 모든 환자가 그렇듯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돈에 갇혀 있는 교회, 성공에 매어 있는 성도들이 보여주는 증상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런 증상들을 인정하지 않는 안톤의 실명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톤의 실명증세

질병의 증상 중에 '안톤-바빈스키 증후군'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일명 질병인식불능증이라고 불립니다. 통상적으로 안톤의 실명 증세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신경학자인 가브리엘 안톤의 이름을 딴 질병이죠. 뇌졸중이나 외상에 의한 두뇌손상 이후 일어날 수 있는 희귀한 증상이라고 합니다. 이 질병에 걸리면 시력을 잃고서도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앞을 못 봐서 어딘가에 부딪혀 멍이 듭니다. 그러면 자기가 눈이 멀어서 부딪힌 게 아니라 조심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우깁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바로 안톤의 실명 증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 온몸에 멍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고 우깁니다. 저는 교회개혁운동을 하면서 담임목사직 세습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서 안톤의 실명 증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걸 경험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양식 있는 사람의 눈에는 교만과 욕망에 사로잡힌 아버지 목사가 교회에 속한 재산과 소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고 운영할 뿐 아니라 마침내 교회 자체도 자기 것인 양 생각하고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교계지도자들은 원론을 들이대며 교회 안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고 우깁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2010년 2000억 원이 넘는 돈을 들여 초대형교회건물을 짓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시 중앙일보 김진 논설위원조차 한 칼럼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교회는 탈세속의 존재여서 그들과는[개인과 기업과는] 달라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은 세속의 불안전을 매워 보려 교회에 가고 성당에 가고 절에 간다. 종교가 세속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왜 그곳에 가는가. ... 대형·부자가 교회의 원초적 정신은 아닐 것이다.¹⁾

그런데 교회는 우깁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다. 그러니 교회가 세속화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이 우려하는 것은 교회를 보는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런 거다. 세속적인 잣대로 판단해서 그렇다.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게 안톤의 실명 증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정확히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안톤의 실명 증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대화하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십니다.

[요 9:41]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한국교회가 안톤의 실명증세를 자각하고 눈이 멀어 그 동안 자신의 증세를 인정하지 못했노라고 고백할 날이 속이 오길 기도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병들게 된 사연을 돌아보면 현재의 자기의 증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병들게 된 사연

저는 한국교회가 돈에 갇히고 성도들에 성공에 매이게 된 데에는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정신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 정신이야말로 사회로 하여금 돈에 갇히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성공에 매달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막스 베버는 자본주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인간은 돈을 벌고 취득하는 일에 지배당한다. 이는 그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다. 경제적 취득은 더 이상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인간에게 종속되지 않는다.²⁾

자본주의 정신이 주도하기 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을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경제적 취득활동은 그 공동선을 실현해나가는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돈과 부에 대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잡아먹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그런 모습이 보일 때, 가차 없이 돈과 부를 ‘경제적·도덕적 질서의 파괴자’로 맹렬하게 비판했습니다.³⁾

그러나 자본주의 정신은 수단을 목적으로 뒤집은 것입니다. 즉 돈을 버는 경제적 취득 활동 그 자체가 이제는 더 이상 수단이 아니라 삶의 궁극적 목적으로 격상된 것입니다. 마르크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본주의와 함께 도래한 ‘근대사회는 황금이야말로 자신의 고유한 생활원리를 눈부시게 비추주는 화신(化身, incarnation)으로, 즉 자신의 성배(聖杯)로서 쌍수를 들고 반깁니다.’⁴⁾ 그래서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것을 삶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드는 덕목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1) [김진의 시사각각] ‘2100억 교회와 세종시.’ 『중앙일보』 인터넷 판(2010.1.10.)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3961279&clcc=) 검색 2013.9.13

2)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s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London: Unwin Hyman, 1930/1989), p.53. [필자의 번역] 번역본은 막스 베버 저, 박성수 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문예출판사, 2010).

3) 카를 마르크스 지음, 강신준 옮김, 『자본 I-1』 (길, 2010), 206 쪽.

4) 앞의 책, 206 쪽. 당시에 ‘황금’은 돈으로 사용되었다.

해방 후 한국의 역사는 자본주의가 한국사회에 뿌리내리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 한국교회는 자본주의와 거리를 두고 비판적 입장을 취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엔 몇 가지 역사적 맥락이 있습니다. 일제의 억압과 신사참배, 해방 직후 분단 그리고 한국전쟁, 그 이후 냉전체제의 강화에 이르는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철저히 친미·반공·친자본 세력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은 한국동란입니다. 그 전쟁의 성격은 소련을 배경으로 한 사회주의·공산주의를 지향하고 기독교를 배격하는 북한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기독교를 수용하는 남한과의 동족상잔이었습니다. 이는 세계사에서 유일한 경험입니다. 독일도 이념에 의해 동서로 분리되긴 했습니다만 그들은 상이한 이념 때문에 서로 전쟁을 벌이는 참상을 겪지는 않았습니 다. 해방에서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과정에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겪은 남한교회의 기독교인들과 그 지도자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철저히 증오하게 되었고 자본주의에 대하여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정신과 친화적인 기복신앙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들은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쟁의 승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중산층화 되었고 교회 안에는 유력인사들이 갈수록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도세력으로 부상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철저히 친자본주의적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 옆친데 뺨친격으로 1990년을 전후로 해 자본주의에 대항하여 대안사회를 만들 겠다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붕괴했습니다. 자본주의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신자유 주의는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와 자본주의는 마치 일란성 쌍둥이 같이 여 겨졌습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거나 배격하는 것은 곧 기독교를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겨졌습니 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이런 형편을 정상적인 것으로 수용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본주의 영성에서 벗어나려면 더욱 그러합니다. 우선 자본주의와 기독교신앙을 일란성 쌍둥이로 간주하는 이런 현상은 미국과 한국의 독특한 경험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993년 영국에서 『지반(地盤)을 되찾자』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⁵⁾ 그 부제는 ‘기독교와 사회주의’였다. 필진 중 대표적인 인물은 당시 영국노동당 당수였던 존 스미스인데 그는 기독교사회주의운동의 회원이자 스코틀랜드교회 교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글 제목 이 책 제목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권두언은 한국에도 잘 알려진 토니 블레어가 썼습 니다. 그는 당시 노동당의 국회의원으로 그림자 내각 내무부장관이었는데 영국성공회 교인이자 기독교사회주의운동의 회원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 책의 요지는 노동당 창시자들의 기독교신앙이 여전히 지속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니 거기에 기반을 둔 급진적 비전을 다시 찾자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야말로 정의, 가난, 부의 창출 그리고 국 가의 역할 등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표를 항상 의 식해야하는 대표적인 야당 지도자들이 마음 놓고 자신들을 기독교사회주의운동의 지지자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부럽습니다. 영국노동당은 현재까지도 당헌법 제4조 1항에 자신을 ‘민주적 사회주의 정당’으로 뚝뚝이 규정하고 있습니다.⁶⁾ 저는 여기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우열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같이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평가하고 어느 것이 기독교정신과 가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지 분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맹 목적으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분위기는 반드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비로소 자본주의 정신에서 깨어날 수 있고 돈과 성공에서 자유로워지는 계기를 마련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기독교가 자본주의 정신에 세례 받아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5) Rt. Hon. John Smith & others, ed. Christopher Bryant, *Reclaiming the Ground*(London: Spire, 1993).

6) <http://labourcounts.com/constitution.htm> 검색 2013.9.29.

뒤틀린 신앙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신 6:5과 레 19:18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2:34-40] 34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 자리에 모였다. 35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36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37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39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40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첫째 계명은 전폭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진실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계명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하나님나라의 대헌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나라의 백성이 이 두 계명을 잘 준수할 때, 하나님나라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누구보다도 잘 파악한 것이 자본주의의 배후세력인 mammon입니다. mammon은 이 두 가지를 무너뜨려야 하나님나라가 무너지고 자기의 왕국이 강화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공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성경해석 방법을 뒤틀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생겨난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요 값싼 은혜와 죽은 믿음입니다. 기복신앙에 빠지면 첫째 계명이 무너지집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다보면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값싼 은혜와 죽은 믿음에 매료되면 진실한 이웃사랑의 실천을 등한시하게 됩니다. 이로서 뒤틀린 신앙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게 되었습니다. mammon은 이를 보며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입니다.

1) 성경을 뒤트는 해석

예수님은 자신을 신성모독자로 몰아 죽이려고 하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어 해석하도록 조종한 장본인은 놀랍게도 마귀라고 못 박으십니다(요 8:44). 자본주의사회에서 마귀는 mammon으로 행세하며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도록 부추깁니다. mammon이 은밀하게 부추기는 잘못된 성경해석 방법을 고든 피가 명료하게 정리해 줍니다.

... 이들의 성경 사용방식은 ...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다. (1) 핵심구절에 대한 반약하거나 잘못된 해석, (2) 성경구절의 선택적 사용, (3) 성경의 전체적 관점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 특히 신약성경 저자들의 기본적인 신학적 틀을 이해하는 데 실패하는 것 등이다.⁷⁾

mammon이 이렇게 성경을 뒤틀어 해석하게 한 결과로 태어난 것이 다름 아닌 다양한 버전의 기복신앙 그리고 값싼 은혜와 죽은 믿음입니다.

2) 다양한 버전의 기복신앙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나라와 그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 6:25-34). 그러나 기복신앙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앙인에게 경제적 필요를 넘어 경제적 풍요를 반드시 제공하신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의 본능적 탐욕을 자극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 mammon을 섬기게 만들기에 본질상 '탐욕의 복음'입니다. 기복신앙의 핵심은 어거스틴이 일찍이 잘 정의한 것처럼 돈 자체를 향유하기 위해 하나님을 단지 이용하는 왜곡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은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사용하는 게

7) 김세운, 고든 피, 월터 카이저, 더글라스 무 외 지음, 김형원 옮김,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 (새물결플러스, 2011), 29쪽.

아니라 도리어 돈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⁸⁾ 제서니는 이런 기복신앙의 모습은 점술로 신을 조정하려했던 고대종교들, 그리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 공식을 명료하게 정리합니다.

A를 제물로 바치고, B기도문을 암송하며, C를 삼가면 하나님은 D로 우리를 축복할 것이다.⁹⁾

여기서 D는 물론 세상적 풍요 즉 권력, 명예 그리고 부를 의미합니다. 기복신앙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존재의 변화가 총체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D를 얻기 위해 단순히 소비되는 신앙입니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 얼마간의 비용을 치르듯 상품화된 신앙을 소비하기 위해 앞서 A와 B와 C를 적절하게 섞어 제단에 바칩니다. 이러한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거룩한 사탕 뽑기 기계’ 혹은 ‘우주적인 자동판매기’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 기계의 작동방식은 아주 편리합니다. 컴퓨터의 주변장치처럼 ‘꽂는 즉시 실행된다.’(plug-and-play).¹⁰⁾ 이런 신앙을 달리표현하자면 과잉민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교회 성도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온 다양한 기복신앙의 버전들로 조용기 목사의 「축복의 복음」,¹¹⁾ 브루스 월킨슨의 『아베스의 기도』,¹²⁾ 김동호 목사의 『깨끗한 부자』¹³⁾ 그리고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¹⁴⁾ 들 수 있습니다. 상품은 소비자의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팔리지 않고 결국 망합니다. 그와 유사하게 맘몬도 적절한 시기에 기복신앙의 새로운 버전을 출시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복신앙의 버전들은 하나 같이 자신들이 기복신앙의 일종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복신앙 안에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는 장치들이 이미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기복신앙의 자기기만적 장치

첫째, 고든 피가 말한 대로 성경을 뒤틀어 해석해 스스로를 매우 성경적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예컨대 축복의 복음은 고후 8:9과 요삼 2절을 선택적으로 강조합니다. 고후 8:9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야 하며, 받은바 축복을 나누어주며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이다.’¹⁵⁾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명백한 오독의 결과입니다. 고후 8:9의 맥락은 고린도교회 성도들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의 은혜에 동참함으로 스스로 가난해져 예루살렘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연보(捐補)하도록 독려하는데 있었습니다(고후 8:1-8, 10-12).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거나 나누려면 우선 잘 믿어 부자가 되어야한다는 점을 가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바울이 고린도교회가 본받아야할 모델로 마게도냐교회 성도들을 제시했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칭찬한 이유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풍성한 구제헌금에 동참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고후 8:2). 그러나 축복의 복음에 의거하면 그들은 칭찬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주신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극한 가난에 처해 있기에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일 뿐입니다.

8) 필립 위저만 지음, 임성빈 옮김, 『기독교윤리학의 역사』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110 쪽.

9) 스카이 제서니 지음, 이대은 옮김, 『하나님을 팝니다』 (조이선교회, 2009), 173 쪽.

10) 앞의 책, 173-174 쪽.

11) <http://yfgc.fgtv.com/y1/03.asp> 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에 관한 PDF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2) 브루스 월킨슨, 『아베스의 기도』 (도서출판 기드온, 2001).

13) 김동호, 『깨끗한 부자』 (규장, 2001).

14) 조엘 오스틴 지음, 정성목 옮김, 『긍정의 힘』 (두란노, 2005). 이 책 이후에도 미국에선 끊임없이 그의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한국에선 『잘 되는 나』 (두란노, 2007), 『최고의 삶』 (긍정의 힘, 2010), 『행복의 힘』 (생각연구소, 2012) 등으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 특별히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15) 『오중복음과 삼중축복』, 17 쪽. <http://yfgc.fgtv.com/image/y1/5fg3fb.pdf>

요삼 2절에 대한 해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하는 사도 요한의 덕스러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일종의 덕담을 신학적 명제로 둔갑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사업이 잘 되어서 운택, 풍족한 물질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이웃에게 많이 나눠주는 생활'을 누리게 되며 육체의 강건함 즉 질병을 치유 받아 건강하게 살게 된다는 일종의 도식적 함수관계를 끌어냅니다.

둘째, 나눔과 베품의 삶을 언급하여 기복신앙에 담겨 있는 탐욕을 숨겨버립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 공부 잘 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자는 겁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남을 많이 도와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심플웨이 공동체의 현관 위에는 '오늘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행하지 않았다면 손님을 맞지 말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¹⁶⁾ 기복신앙을 선호하는 사람은 '위대한 사랑으로 하는 작은 일'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서 두 렵돈,¹⁷⁾ 대략 빈약한 한 끼 식사비용이나 1회 목욕비용에 해당하는 돈밖에 못 바친 과부가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많이 헌금했노라고 극구 칭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막 12:41-44).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도 예수님의 마음을 늘 간직했기에 극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던 마게도냐 성도들의 구제헌금이 비록 액수로는 작았겠지만 풍성한 헌금이라고 자랑합니다.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구제를 더 많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실상 자신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 구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제의 기준을 높인다고 해서 그 숨겨진 욕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워 주어야 비로소 하늘의 보화를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눅 18:22). 구제의 기준을 좀 높여 자신 안에 은밀하게 숨겨진 욕망을 피해가려는 여지를 없애 버린 것입니다. 야박해보이지만 이는 그를 향하신 깊은 사랑의 표현입니다(막 10:21). 예수님은 그가 영생을 잃길 결코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들이 가난한 과부나 마게도냐 성도 같은 이들을 얼마나 아프게 만드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셋째, 왜곡된 과잉믿음을 좋은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기복신앙의 주창자들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부와 성공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라고 강조합니다. 조용기 목사는 한 설교에서 심지어 나사로를 '하나님을 잘 믿으나 상주시는 것을 몰라 평생 거지로 산' 사람이라고 폄하합니다. 그리곤 이어서 '예수도 잘 믿고 돈도 잘 벌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부자가 되고 그래야 참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라고 역설합니다.¹⁸⁾

이런 믿음을 저는 왜곡된 과잉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전체를 보면 믿음과 하나님의 물질적 축복사이에 일정한 도식적 함수관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좋아하는 잠언서에서조차 그런 도식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잠언서에는 블롬버그가 잘 파악한 것처럼 부와 가난이라는 주제에 관해 두 가지 흐름이 긴장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 의롭고 겸손하게 그리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를 누리게 된다는 관점입니다(잠 10:3, 22; 12:11; 13:22, 25; 14:23; 15:36; 21:5; 22:4; 27:23-24). 다른 하나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잘 믿어 선하고 겸손하며 정의롭게 살지라도 물질적 축복을 누리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믿음도 없고 악한 사람들이 도리어 정치경제적으로 형통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냉엄한 현실인식입니다(잠 13:23; 15:16; 16:8; 19:1;

16) 존 퍼킨슨세인 트레이본 지음, 신광은 옮김, 『세상을 바꾸는 리더십, 제자도』 (정연, 2010), 122 쪽.

17) 한 렵돈은 당시 최소 단위의 동전으로 대략 한 데나리온(하루 품삯)의 1/128에 해당한다.

18) 조용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잊지 말자', 여의도순복음교회 2010년 2월 7일 주일설교.

http://davidcho.fgtv.com/C2/C2_1.asp?shType=1&code=2010&mm=02에서 날짜로 검색하면 인용된 동영상설교를 들을 수 있다.

23:17; 24:1; 28:6). 고트월드는 부와 가난을 다루는 잠언 구절들 중 전자를 반영하는 구절은 3분의 1도 안 되는 반면, 나머지 구절은 다 후자에 주목한다고 말합니다.¹⁹⁾ 잠언은 최후심판이 이루어 질 때에야 이 둘 사이의 긴장관계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잠 11:4, 28. 참조: 시 49:10-20; 73:17-19).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야 없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을 끈질기게 기다리시는 과정에서(벧후 3:3) 하나님은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폭력을 행하시거나 그의 자유의지를 강제로 꺾으시지 않으십니다. 역사의 흐름을 기계적으로 조정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종종 정의롭고 선한 자가 가난과 고통을 겪고 악한 자가 도리어 권력과 부를 누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연기 되었기에 자연 역시 온전히 치료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연재해는 사람을 가리지 않고 여전히 발생합니다.

자크 엘룰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무력(無力)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무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깨닫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본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고 기계화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이다 ...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것은 자발적 무력(無力, non-puissance)의 실패다. ... 성령은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에게 복종케 하는 역사적 힘이 아니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역사적 힘도 아니다. 성령은 모두가 절망한 곳에 희망을 주고, 이 재난가운데서 지탱하는 힘을 주며, 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명석함을 주고, 오히려 활동 중인 악한 세력을 이편에서 왜곡시키는 능력을 준다.²⁰⁾

저는 수년 전 한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에 대해 강의한 후 경험한 바를 잊을 수 없습니다. 어느 40대 초반 쯤 되 보이는 여성도가 강의 후 목양실까지 저를 찾아 왔습니다. 그리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동안 저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살았지만 성공하지 못해서 너무나 슬프고 고달팠습니다. ‘아, 나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늘 죄책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살아도 가난해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한없는 위로를 받았어요. 절망과 죄책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면서 하염없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아마도 과거에 겪었던 서러움과 새롭게 얻게 된 위로가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이었을 터입니다. 기복신앙을 전하는 이들은 제발 이런 성도들의 아픔에 마음의 귀를 기울여주었으면 합니다.

3) 값싼 은혜 죽은 믿음

경제영역에서도 사람들이 확실하게 내 몸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면 세상의 모습이 어떨까요? 저는 절대적 빈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까지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되길 바라는 만큼 남도 잘 되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마르크스가 꿈꿨던 ‘자유인의 연합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²¹⁾ 그렇게 고루고루 잘 사는 세상에서 mammon이 힘을 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집니다. 불평등이 있어야 돈은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견희 회장이 막강하게 힘을 쓸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부의 신 mammon은 이웃사랑의 실천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여 그는 인간의 탐욕을 자극해 은혜와 믿음을 교묘히 왜곡시켜 왔습니다. 진정한 은혜와 믿음은 우리를 이웃사랑실천의 길로 안내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원래 아주 비싼 것인데 값싼 것으로 만들었고, 믿음은 원래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하는데 죽여 버렸습니다. 은혜와 믿음을 이웃사랑의 실천과는 무관한 것으로 왜곡시켜 버렸

19) 크레이그 블룸버그 지음, 박규태 옮김,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IVP, 2012), 79-80, 84-85, 87 쪽.

20) 자크 엘룰 지음, 자크엘룰번역위원회 옮김, 『뒤틀러진 기독교』 (대장간, 1990/1998), 305-6 쪽.

21) 카를 마르크스-프리드리히 엥겔스 지음, 권화현 옮김, 『공산당 선언』 (행권클래식코리아, 2010), 255쪽: ‘우리는 각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연합체를 가지게 될 것이다.’

습니다. 은혜나 믿음이나 다 반쪽 진리가 돼버린 것입니다. 반쪽 진리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일찍이 영국의 계관시인인 테니슨은 「할머니」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습니다.

진실을 반쯤 섞은 거짓말이 가장 사악한 거짓말/ 온통 새빨간 거짓말은 즉각 대항하여 싸우기가 쉬운 법/ 그러나
일부분만 진실인 거짓말은 훨씬 싸우기가 어렵다네.²²⁾

한국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 반쪽 은혜인 값싼 은혜, 반쪽 믿음인 죽은 믿음의 정체를 정확히 밝혀내 교회 안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 값싼 은혜

원래 참된 은혜를 입으면 진실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에서 아름답게 실현되었습니다.

[행 4:33-35] (33)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그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34)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가 (35)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은혜는 원래 이런 것인데 맘몬은 이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둔갑시켰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파악한 분이 바로 본회퍼입니다. 그는 ‘값싼 은혜란 죄인은 의롭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서 죄 자체를 의롭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²³⁾고 말합니다. 그는 루터 이후 500여 년 동안 독일교회에 가장 큰 폐해를 끼친 것으로 ‘값싼 은혜’를 꼽습니다. 이는 한 국가를 명목상 기독교 국가로 전환시켜준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본질을 팔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철저히 세속화되었습니다. 진실한 이웃사랑의 실천이 사라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부르주아로 사는 것 사이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며 본회퍼는 한탄합니다.

우리 루터교인들은 마치 독수리처럼 값싼 은혜라는 시체 주변에 모여들었다. 그리곤 거기서 독을 들이마셨다. 그 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죽여 버리고 말았다.²⁴⁾

슬프게도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 죽은 믿음

원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알리스터 맥그래스는 『종교개혁사상』이라는 책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이해한 믿음 즉 ‘의롭게 해주는 믿음’이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 명료하게 설명해줍니다. 첫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 고백이며 둘째, 믿는 바에 근거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신뢰이며 셋째, 믿는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것입니다.²⁵⁾ 이런 믿음은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을 만들 때 배격한 것은 살아 있는 믿음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 사랑의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로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믿는 율법적인 행위들 즉 수도사들의 금욕주의적 삶, 고행 등이었습니다. 그런 공로사상이 중세교회의 부패의 근저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율법적인 행위에 의해 축적된 잉여공로를 넘겨주는 대가로 죄의 경중에 따라 헌금을 내게 했고 심지어는 연옥에 가있는 이들을 위한 면죄부까지 팔았던 것입니다.

루터가 사랑의 실천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는 그 유명한 「95개 조항」 반박문에도 잘 드러납니다. 제43조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궁핍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이 면죄부를 사는

22) 내 번역임.

23) Dietrich Bonhoeffer, *The Cost of Discipleship* (London, SCM Press, 1948, 1986), p. 35. [필자 번역] 번역본은 디트리히 본회퍼 지음, 손규태이신진 옮김, 『나를 따르라』 (대한기독교서회, 2010).

24) 앞의 책, p. 44. [필자 번역]

25) Alistair E. McGrath, *Reformation Thought: An Introduction* (Blackwell, 1993), pp. 97-101. 번역본은 알리스터 맥그래스 저, 최재건 역, 『종교개혁사상』 (기독교문서선교회, 2006).

것보다 더 선한 일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야 한다.’ 제45조항은 심지어 ‘이웃의 괴로워 하는 것을 보고는 본체만체 하면서도 면죄부를 사기 위해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까지 말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담긴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을 ‘오직’이라는 단어를 비틀어 죽은 믿음으로 둔갑시킨 것입니다. 스프라울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에 담겨 있는 ‘오직’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by faith alone) 의로워진다고 가르쳤다. 홀로 존재하는 믿음으로(by a faith that is alone) 의로워진다고 가르친 적이 없다. 믿음은 결코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언제나 행동으로 자신을 보여준다.

교회의 부패

뒤틀린 신앙은 결국 교회의 부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기복신앙에 매료되어 있고 값싼 은혜와 죽은 믿음에 안주하게 되면 결국 엄청난 자원과 열정을 개교회의 물량적 성장에 쏟아 붓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나라를 모델로 삼기 보다는 자본주의적 사고와 가치에 따라 스스로를 운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 경쟁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려면 경제의 규모를 갖춰야 하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자본주의적 생존 및 성장 전략이 한국교회 안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 왔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개교회성장주의와 그에 따른 공격적인 전도와 선교입니다.

개교회 성장주의야 말로 교회부패현상의 근원지입니다. 일단 개교회성장주의에 함몰되면 교회는 결국 ‘꿈 잡는 놈이 매’라는 실용적 논리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양도독질’이라는 책이²⁶⁾ 출판될 만큼 보편화된 수평이동을 통한 교인쟁탈전, 문어발 경영을 꼭 닮은 지교회 설립, 담임목사직 세습, 초대형건축을 위한 대규모재정지출 및 차용경영, 교회의 계층화에 따른 교회 간 빈부격차, 목회자의 황제경영 등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효율적인 교회성장을 위해 도입되고 활용되어온 수단들입니다. 이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이들이 일반시민입니다. 그래서 신뢰할 만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사람의 10명 중 7-8명이 한국교회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교회와 교단의 세 확장에 더 관심이 많다고 판단합니다.²⁷⁾

그 뿐 아닙니다. 개교회 성장주의는 결국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킵니다(렘 7:11; 눅 9:46).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개교회가 빨리 성장하려면 재정과 유력한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결국 복음과 교회의 주인이 됩니다. 원래 교회는 시편 73편의 저자가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이 마침내 의로운 심판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불의한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반대로 교회에서 리더가 되려면 어떻게든 세상에서도 성공해야하는 것을 깨닫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도들이 경건한 사람으로 세탁되어 편히 쉬는 곳으로 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빛나간 정치참여를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신앙의 이름으로 지켜내기 위함입니다. 한편으론 정교분리의 원칙을 내세워 개혁의 흐름을 잠재우고 다른 한편으론 조찬기도회, 성명서발표, 서울시청광장의 대중기도회 등을 통해 기득권세력을 지지하곤 합니다. 뒤늦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로잔 언약을 지지하며 기득권강화를 위한 정치참여에 적극 뛰어들기도 합니다. 이들에게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정치참여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²⁸⁾ 한국교회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교회는 돈에서 해방되고 성도들은 성공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26) 윌리엄 채드워 지음, 전의우 옮김, 『양도독질』 (규장문화사, 2002).

27) 1998년 한국교회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중 76%가 한국교회는 ‘잠진리를 추구하기 보다는 교세확장에 더 관심이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2003년 한국신학대학교 신학연구소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응답자 중 68.9%가 한국교회는 ‘자기 교파주의자기 교회 중심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평가는 현재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28) 김지방, 『정치교회』 (교양인, 2007)은 보수교회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사회적 약자는 외면한 채 권력을 탐하는 정치참여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해왔는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 돈에서 해방된 교회, 성공에서 자유로운 성도

돈에서 해방된 교회, 성공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선 적어도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돈의 정체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구원을 경험해 하늘의 보화를 간직해야 합니다. 셋째 교회는 개교회성장주의의 거짓을 발견하고 작지만 사랑이 넘치는 신앙공동체 건설에 힘써야 합니다. 넷째, 성공주의의 허구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자도를 몸에 익혀야 합니다.

돈의 정체 파악

돈의 힘에서 해방되려면 돈 뒤에 숨어서 성도와 교회를 유혹하는 mammon의 정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mammon의 실체를 발견해 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 6:24]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mammon]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재물’로 번역된 성경원어는 mammon입니다. 돈이나 부를 나타내는 다른 통상적인 단어들도 있었지만²⁹⁾ 예수님은 굳이 mammon이라는 단어를 선택함으로써 돈을 의인화하고 유사 신격을 지닌 존재로 표현하셨습니다.³⁰⁾ 돈의 배후엔 인격적이고 영적인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경쟁신’이 도사리고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³¹⁾ ‘돈은 돈일 뿐이다’라는 말에 담겨 있는 것처럼 돈은 단순히 돈의 축적과정이나 사용용도에 따라 그 성격이 좌우되는 독립적이고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본질적으로 이중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돈이 단순히 대안화폐처럼 서로의 노동을 교환하는 데만 사용되고 이자나 이윤을 취득해 자기를 증식시켜나가는 수단이 되지 않는다면 돈은 본질적으로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데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돈이 자기 자신을 증식시켜나가는 수단이 되는 순간, 돈은 매우 유혹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러한 부의 본질을 엘룰이 잘 간파하였습니다.

부는 유혹이다. 부 자체는 악이 아니라 유혹이다 ... 부가 유혹이란 말은 부가 독립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부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인간의 위대한 정신과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악을 주로 드러낸다. 부는 타락의 기회다.³²⁾

같은 맥락에서 포스터는 돈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예수님과 신약성경의 모든 저자들에게 따르면 돈의 배후에는 아주 실질적인 영적인 힘이 있어서 돈을 활성화시키고 돈에게 고유한 생명을 주고 있다. 따라서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요(active agent), 그 자신에 대한 법이요, 돈은 인간으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도록 영감을 불어 넣어줄 능력이 있다.³³⁾

첫째, 돈은 활동적인 행위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흠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듯(창 2:7),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의 기운을 불어넣어주시듯(요 20:22), mammon은 돈에 고유한 생명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돈은 사람의 마음과 몸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행위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귀가하기 위하여 골목길을 가다 5만 원권 지폐꾸러미가 길 위에 놓여 있는 걸 보았다고 합시다.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강의 중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예외 없이 즉답이 나옵니다. ‘좌우를 살핍니다.’ ‘왜지요?’ ‘누가 보지 않는가 살펴보고요.’ 돈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탐욕을 흔들며 깨워 마침내 발과 손을 움직여 돈뭉치를 몰래 움켜쥐게 만드는 활동적 행위자입니다.

29) 마 25:18(알구리온), 막 12:41(칼코스), 행 8:18(크레마).

30) 자크 엘룰 지음, 양명수 옮김, 『하나님이나 돈이나』 (대장간, 1991/1996), 97 쪽.

31) 리처드 포스터 지음, 김병호 옮김, 『돈, 섹스, 권력』 (두란노, 1995), 34 쪽.

32) 엘룰, 『하나님이나 돈이나』, 59-60 쪽.

33) 포스터, 『돈, 섹스, 권력』, 34 쪽.

둘째, 돈은 자신에 대한 법입니다. 돈은 누구의 통제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통제합니다. 그래서 돈은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특별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는 상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아집니다. 이러한 돈의 힘을 가장 명확하게 파악한 사람이 종교를 신랄하게 비판한 마르크스라는 점은 역사의 아이러니라 아닐 할 수 없습니다. 그는 『경제학-철학수고』의 ‘돈의 힘’이라는 단락에서 셰익스피어야말로 돈의 실질적 성격을 탁월하게 묘사했다고 하면서 그의 작품을 인용합니다.

금? 노랑고 반짝이고 값비싼 금? / ... / 요만큼만 있으면 검정을 하양으로, 추한 것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틀린 것도 옳게, 천한 것도 품위 있게, 늙은 것도 젊게, 겁쟁이도 용사로 만들어주고./ ... 젠장, 이게 뭐란 말인가/ 그 래! 이것이 너를 돌보던 사제들과 종들을 네 곁에서 끌고 가 버릴 거야./ 긴장한 사람이 베고 있던 베게도 빼 버릴 걸./ 이 노란색깔 노예가./ 종교들을 만들었다 부셨다 하며, 저주받은 자들을 축복하네./ 허연 문둥병자도 흠모 받을 수 있게 만들며, 도둑놈들에게./ 자리와 직위를 부여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고관들과 함께 존경과 복종을 받게 만드는 구나./ 바로 이게 그 일을 해내지./ 들어버린 과부를 새댁으로 만드는 일, 말이야./ ... / 그 래 친별 받은 땅으로 오거라./ 인류 공동의 창녀여!³⁴⁾

그리곤 이어서 자기 말로 돈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다소 길지만 정확하고 예리한 성찰을 담고 있기에 인용합니다.

돈의 힘이 세질수록 내 힘도 세 진다. 돈의 속성이 소유자인 나의 속성이자 나의 가장 중요한 힘이다. 따라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 지는 결코 내 개성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추남이지만 매우 아름다운 여성을 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추남이 아니며, 못 생긴데서 비롯한 불쾌감조차 돈 덕택에 사라진다. ... 돈이 존경받으므로 그 소유자도 존경받는다. 돈이 지고지상이므로 그 주인도 지고지상이 된다. 게다가 내가 정직하지 않아서 곤경에 처해도 돈이 나를 구해준다. 그러므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 된다. 나는 멍청이지만, 돈이 만물의 지혜인데 어찌 그 소유자를 멍청하다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그 소유자는 현명한 사람을 살 수 있는데, 현명한 자를 지배하는 사람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돈 덕택에 인간의 마음이 바라는 것을 모두 할 수 있는 나는 인간의 능력을 모두 갖춘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돈이 내 무능을 정반대로 바꾸는 것 아니겠는가?³⁵⁾

영국의 저명한 문화비평가인 이글턴은 마르크스의 돈에 대한 성찰을 해설하면서 돈의 힘을 간결하게 정리해줍니다.

돈이 가진 마술 같은 면은 그것이 엄청난 인간적 가능성들을 자신의 협소한 반경 안에 압축해서 집어넣는다는 점이다 ... 돈 자체가 일종의 환원론이다. 돈은 한 줌의 동전 속에 우주 전체를 집어넣는다.³⁶⁾

기복신앙이 교회 안에 탄생한 것도 돈이 ‘한 줌의 동전 속’에 기독교신앙까지 집어넣은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돈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돈에 헌신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스스로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 붓습니다. 돈은 아무리 많이 모아도 이만 하면 됐다하고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식욕이 좋다 해도 하루에 밥 열기를 먹었는데도 또 먹고 싶다면 의사의 전문적 진단을 받아 봐야 합니다. 그러나 돈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여전히 ‘배가 고프다.’ 고 말하는 사람은 프론티어 정신, 기업가 정신이 투철하다고 칭찬합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닙니다.³⁷⁾

돈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으로 헌신케 하는 힘을 갖게 되었을까요? 돈은 사회적 합의로 인해 앞서

34) Shakespeare: *Timon of Athens* 중에서. [필자번역] Karl Marx, *Economic &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44*.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재인용함.

원문: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4/manuscripts/power.htm> 검색 2013.9.26.

35) Marx, *Economic & Philosophic*. 조셉 추나라 지음, 차승일 옮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 (책갈피, 2010), 28 쪽에서 재인용.

원문: <http://www.marxists.org/archive/marx/works/1844/manuscripts/power.htm> 검색 2013.9.26.

36) 테리 이글턴 지음, 황정아 옮김, 『왜 마르크스가 옳았는가』 (길, 2011), 117-118 쪽.

37) 김찬호, 『돈의 인문학』 (문학과 지성사, 2011), 4-7 쪽.

언급한 바와 같이 ‘무한한 교환가능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³⁸⁾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손아귀에 넣을 수 있습니다. 구두쇠는 그래서 행복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황홀감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돈은 무한대의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의 양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무한한 가능성에 참여하려면 돈을 무한히 축적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한한 자기 확대의 꿈 즉 영생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죽도록 일하는 것입니다. 마치 시시포스가 돌을 굴려 정상에 올려놓는 순간 돌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시 굴을 굴리며 정상을 향해 올라가듯 그렇게 삽니다.³⁹⁾ 이런 모습을 니체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하던 것을 이제는 돈을 사랑하기 위해 한다. 돈은 오늘 우리에게 권력과 선한 양심을 누리고 있다는 최고로 고양된 감정을 갖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⁴⁰⁾

그러면 이처럼 막강한 돈의 신 맘몬과 맞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것 외에 없습니다.

참된 구원의 경험

강신주는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⁴¹⁾ 실린 글에서 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길을 네 가지로 제시합니다. 상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확대하자, 서로 간에 인격적인 관계와 상호 신뢰를 회복하자,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고 돈을 수단으로 삼자, 인관관계의 직접성을 높여 ‘돈 없으면 죽는다’ 말이 먹히지 않게 하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원초적 본능인 탐욕을 제거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강신주는 이렇게 자신의 글을 마무리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회든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은 늘 새롭고 보다 나은 쪽을 향해 진보한다는 것 역시 인간의 역사가 보여준 분명한 진리입니다. 희망은 있어요.⁴²⁾

물론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예컨대 ‘결국 내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나는 희망을 고집한다’고 말한 하워드 진 같은 분은 너무 훌륭한 분입니다.⁴³⁾ 그러나 아무리 희망을 안고 산다 해도 인간의 힘만으로 맘몬과 싸워 결정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맘몬에게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율법적인 종교성으로도 맘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처럼 언어 활용에 있어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십계명 중 7, 6, 8, 9, 5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언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마음 속 깊은 곳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부에 대한 탐욕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도리어 경건한 언어생활, 율법적인 종교성 때문에 은밀한 탐욕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과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며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하늘보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서 비로소 희망을 발견합니다. 그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모든 가치를 포기하고 세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양심, 진정한 친구, 동족, 좋은 평판 등 모든 것을 등졌습니다. 그러

38) 강신주, 『상처받지 않을 권리』 (프로네시스, 2013), 54 쪽.

39) 카를 마르크스 지음, 강신준 옮김, 『자본 I-1』 (길, 2010), 207 쪽.

40) Friedrich Nietzsche, *The Dawn of Day*, trans J. M. Kenedy (London: Allen and Unwin, 1911), pp. 209-210. [필자 번역] Timothy Keller, *Counterfeit Gods* (New York: Dutton, 2009), p. 51에서 재인용함. 후자의 번역본은 티머시 켈러 저, 이미정 역, 『거짓 신들의 세상』 (베가북스, 2012).

41) 이시백 외 지음, 『나에게 돈이란 무엇인가』 (철수와 영희, 2013).

42) 앞의 책, 201 쪽.

43) 하워드 진 지음, 유강은 옮김,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 (이후, 2002), 22 쪽. 권기봉, ‘결국 내겐 절망할 권리가 없다.’ 『오마이뉴스』 인터넷신문 (2002.12.1.)에서 재인용. 검색 2013.9.28.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96564&CMPT_CD=SNS0

나 여리고 세리장의 자리까지 올라 막상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 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을 느꼈습니다. 그 갈망이 그를 뽕나무까지 올라가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사랑의 눈길은 그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 사람들의 평판을 아랑곳 하지 않고 그의 집에서 묵고 싶다고 제안합니다. 삭개오 역시 마음을 열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하늘보화를 얻었습니다.

그러자 돈에 대한 탐욕의 사슬이 스르르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강탈한 것은 네 배로 하여 갚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20%의 이자를(레 5:16; 민 5:7) 훌쩍 뛰어 넘어 무려 300%의 이자를 붙여 주겠다는 겁니다. 그는 지금 ‘그렇게 하고 나면 나와 우리 가족은 뭐 먹고 살지,’ 하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실로 하늘보화를 경험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소유를 더 이상 자기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눅 19:9).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행 4:32) 그리고 마게도냐교회 성도들이(고후 8:2) 바로 진정한 구원을 경험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구원을 새롭게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추구하는 교회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은 함께 모여 초대 예루살렘교회처럼 진실한 사랑의 공동체를 건설해나가야 합니다. 결코 개교회성장주의자들이 하는 달콤한 말에 속아선 안 됩니다.

1)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형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대형교회였기 때문에 오늘의 대형교회를 정당화해 준다는 말에 혹해선 안 됩니다.

첫째,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한 번도 물량적 성장을 교회목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장은 단지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과 그에 따른 담대한 복음선포의 자연스러운 결과였을 뿐입니다. 교회의 최우선 순위를 교회의 유지·확장에 두는 것과 성령충만·복음선포에 두는 것 사이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 교회가 부패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둘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부활신앙에 기초한 철저한 제자도가 있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들 중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행 2:44-45; 4:32-37). 신명기 15:4-5절의 언약이 실현된 하나님나라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 제자도야말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신앙적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형교회들은 보편화된 철저한 제자도 대신 규모 자체를 자신들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내세웁니다. ‘성장과 성공이 곧 선이고 진리이다,’ 라는 비기독교적이고 반복음적인 명제를 당연시합니다.⁴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가정교회들의 연합체였습니다. 이는 교회는 강력한 담임목사를 권력의 정점에 둔 위계질서에 따라 냉정하게 운영되고, 소그룹 모임은 그 틀 안에서 작은 오아시스의 역할을 하는 대형교회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후자는 시장과 국가는 냉혹한 경쟁 논리에 따라 작동하고 가정에선 정을 나누는 자본주의 사회와 많이 흡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엔 권력의 유일한 정점 자체가 없었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공동리더십을 발휘하였습니다(행 2:42: 한글 개역성경과 개역개정성경에는 ‘사도’로 되어 있는데 원문은 ‘사도들’이다). 공동리더십마저 제자들 위에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었습니다. 구체사역을 전담할 일군 7명을 선택할

44) 김경재, ‘한국기독교의 나갈 길: 신학, 영성수련의 측면에서’, 『새길 이야기』 (2005/봄), 98 쪽.

때도 그들은 단지 기준만 제시했을 뿐이다. 온 무리들이 7명을 선택해왔을 때 사도들은 단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행 6:1-6).

그 뿐 아니라 가정에선 함께 떡을 떤었는데 이는 오늘로 말하자면 성찬식을 겸한 애찬이었습니다. 가정모임이 하나의 독립적인 예배공동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누가 가난한지를 금방 알아차리고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행 2:45-46).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오늘날의 메가처치를 정당화하는 신학적 근거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2) 대형교회야말로 좋은 교회?

대형교회야말로 좋은 교회라는 말에도 속아선 안 됩니다.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2009년 11월 20일 자신의 교회에서 열린 '복음주의 미래'라는 포럼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 주일에 메가처치에 가는 것은 여러 면에서 참 불편한 일이다. 그런데도 왜 메가처치에 가는가? 좋은 프로그램과 목회가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개인의 필요에 더 잘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메가처치기 때문이다. 크기가 문제가 아닌 것이다. 소형 교회에 비해서 개인의 요구를 잘 맞추어 줄 수 있는 것이 메가처치다.⁴⁵⁾

그는 자신의 교회가 진짜 공동체를 만들어져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구체적 사례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 자신의 교회엔 4500개의 소그룹이 있어서 아픈 사람, 해고당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돌볼 수 있다. 둘, 300여 개의 목회 프로그램을 통해 다운증후군 아이를 가진 부모를 비롯해 다양한 필요를 갖고 있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볼 수 있다. 특히 후자는 작은 교회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에는 두 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첫째, 릭 워렌 목사는 개교회주의를 이미 불변의 전제로 삼고 논지를 펼칩니다. 왜 교회는 중요한 임무를 꼭 개교회별로 수행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마게도니아교회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절실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있습니까(고후 8-9장)? 릭 워렌 목사가 자랑스럽게 주장하는 사역들은 작은 교회들이 협력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모두 연약한지라 연합사역이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개교회성장주의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주님의 은혜로 더 성숙해 나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릭 워렌의 둘째 오류는 예수님이 온 몸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의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수님 역시 개인의 실질적 필요들을 채워주는 것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요 6:1-13).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신 사역이 있었는데 그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영생을 맛보고 예수님을 온 몸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요 6:14-71). 우리는 이 둘 사이에 충돌이 없을 거라고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대형화해 개인들의 필요를 잘 채워주면서도, 아니 그래야 십자가의 도를 더 쉽게 전하고 실현해낼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감히 말하자면 이는 매우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사실상 공생애 사역기간 동안 이에 실패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내놓자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께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서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라고 멋지게 대답한 베드로마저도 막상 십자가가 코앞에 다가오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요 6:68-69; 18:25-27).

교회를 잘 키워 교인들의 필요는 충분히 채워주었는데 그들을 십자가의 도로 이끌어가지 못했다

45) 김성희, '릭 워렌 목사, "메가처치가 교인들 요구 더 잘 채운다," 『뉴스앤조이』 인터넷 판. (2009.11.25.)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8972> 검색 2013.9.22.

면 그건 예수님과 하나님나라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패입니다.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교적 건강한 대형교회를 세운 고 옥한음 목사나 홍정길 목사가 은퇴 후 자신의 사역이 실패였다고 고백한 것을 정말 곰곰이 성찰해야 합니다.⁴⁶⁾ 단순히 그들에게서 겸손의 미덕을 보고 그들을 더욱 존경하는 것으로 끝나선 안 됩니다. 그들이 실패라고 한 것을 정말 실패로 깨닫고 그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의 진정한 제자를 키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십자가의 제자도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대형화하면서 동시에 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까요? 바람처럼 불처럼 각자에게 임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순교를 각오한 사도들 같은 인물의 출현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적 섭리가 오늘에 재현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한 십자가의 도를 정말 온 몸으로 가르치고 싶다면 교회 대형화에 대한 열망이나 자랑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작지만 큰, 약하지만 강한 신앙공동체가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여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몸에 익히는 성도

성공에서 자유로운 성도가 되려면 먼저 성공을 그리스도인의 필연적인 목표로 설정하는 승리주의 정신을 잘 극복해야 합니다.

1) 왜곡된 승리주의

왜곡된 승리주의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궁극적 승리를 왜곡한 정신과 삶의 방식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자가 되셔서 현실 세상을 이미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세상의 모든 영역을 정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반드시 정복하여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각 영역에서 세속적 의미에서도 반드시 성공해야만 비로소 효과적으로 하나님나라를 증언하고 확대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들은 세속적 성공을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⁴⁷⁾

그러나 이는 왜곡입니다. 물론 주님은 요셉,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그리고 바울같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성공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드온, 아모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해 평범하고 학문이 없는 열두 제자들, 두 랍돈이 생활비 전부인 과부,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하게 연보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평범하거나 미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위대하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에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경제적 풍요나 마법 그리고 정치권력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증명해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하나님에 대한 신뢰,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통해 뻗어나갑니다.⁴⁸⁾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성공을 보장하시거나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2) 성공에 대한 바른 관점

진정한 성공은 세속적 차원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영역에서 그의 성품과 삶을 닮아나가는데 있습니다. 주요 특징은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부지런함(골 3:23-24)과 충실함(고전 4:2)입니다.⁴⁹⁾ 그리고 이런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몸에 익힐 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사회경제적 성공을 추구해야 할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높은 자리에서 크고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낮

46) 옥한음 인터뷰, '나의 교회론과 제자훈련은 엇박자가 된 것 같다,' 『디사이플』 Vol. 130 (2009.11) http://www.disciplen.com/disciple/article_view.asp?darcid=1748&page=&p_no=1&s_no=1&thd_code=1101 검색 2013.9.22. 김은실, '홍정길 목사 "나의 목회는 실패," 『뉴스앤조이』 인터넷 신문 (2013.9.16.)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142> 검색 2013.9.22.

47) 리처드 마우 지음, 홍병룡 옮김, 『무례한 기독교』 (IVP, 2004), 165-176 쪽을 참조하라.

48) 존 F. 케버너 지음, 박세혁 옮김,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 (IVP, 2011), 163-165 쪽.

49) Kenman L. Wong & Scott B. Rae, *Business for the Common Good* (IVP, 2011), pp. 131-135.

은 자리에서 작지만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다거나 탁월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선포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고전 1:22-25] 22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²³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²⁴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바울은 당대의 시대적 흐름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세상을 구원하려면 강함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유대인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초월적 능력, 그리스인은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철학적 성찰의 능력을 흠모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약함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약한 너무나 약한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맥락에서 바울이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이라는 약함으로 세상의 강함과 맞서 저항하셨고 마침내 그 강함을 무력화시키셨다는 진리입니다.⁵⁰⁾

최근 『은혜로운 기독교』라는 책을 읽고 은혜 받은 대목이 있습니다.

동방정교신학의 어떤 부류에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뒤로 물러나셨다고 제안한다. 이는 세상이 존재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이다. 이는 마치 이미 제법 많은 사람들이 탄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이 더 탈 수 있도록 뒤로 물러서는 것과 흡사하다.⁵¹⁾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숨 쉬고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 볼 때마다 놀라운 편안함과 안식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연약함은 세상에서의 높은 자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도를 터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어떤 강함보다도 더 강한 사람입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힘차게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했어도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펼쳐가는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세상적인 강함이나 약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한 성공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함을 아는 데 있습니다.

3) 반문들에 대한 답

그래도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일단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 낮아지고 약해지는 게 아닌가, 라고 말입니다. 이 반문에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약함을 질이 아니라 양으로 측정하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양이 아니라 질로 측정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자기를 비워 약해질 수 있는 양이란 겨우 두 렵돈 밖에 되지 않았지만 생활비 전부를 드려 약해지는 그 질을 보고 그를 극찬했습니다. 이를 꿰뚫어 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을 다시 속이게 됩니다. 약해짐을 빙자해 성공을 향한 자신의 탐

50) Walter Brueggeman, *The Prophetic Imagination* 2nd ed.(Minneapolis: Fortress Press, 2001), p. 94-98. 번역본은 월터 브루그만 저, 김기철 역, 『예언자적 상상력』 (복있는 사람, 2009).

51) Douglas Jacobsen and Rodney J. Sawatsky, *Gracious Christianity* (Grand Rapids: Baker Academic, 2006). pp. 28-29.

욕을 숨기려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공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불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자각이 부족할 위험성이 높습니다. 일단 성공해야 약해지는 것도 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성공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이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대하여 눈을 감게 될 위험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양심의 가책을 어느 정도 느끼다가도 나중에는 정당화시켜 버립니다. 자기를 성공에 이르게 한 사회구조와 제도는 완전하진 않아도 타락한 세상에선 현실적으로 가장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왜곡된 승리주의자들은 대체적으로 기존사회와 구조에 대하여 보수적 입장을 취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나라의 급진적 지평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반문은 그렇게 약함만 강조하면 너무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게 되지 않겠느냐, 입니다. 이 반문은 현실에선 일어날 수 없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몸에 익히고 사는 사람이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게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나를 비우고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이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약함의 길을 초지일관 걸어가신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열심히 사셔서 3년 이상을 넘기기 어려웠다고 말하는 것이 진실에 가까울 겁니다.

마지막 반문은 그럼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안 되고 꿈꾸거나 노력해서도 안 된단 말인가, 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 그런 자신이 탐욕을 좇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자 함인지 수시로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다음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심사숙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나라는 근본적으로 부와 권력으로 유지되거나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관점이 확고한가. 즉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하나님나라의 역군이요 주인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가.

둘째, 성공에 이르는 사다리를 제공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가.

셋째,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서 심각한 양심의 고통을 겪을 때, 감사히 실패의 길을 택할 용기가 있는가.

넷째, 성공한 후에 성공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아무리 깨끗했다라도, 구조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는가.

다섯째, 성공했다라도 자신의 사명과 위치에 걸 맞는 기본적 필요로 만족하는 소박한 삶을 살면서 나눌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 성공한 후 자신의 부와 자리를 걸고 좀 더 정의로운 체제를 추구할 의지가 있는가.

이상의 질문들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 때 비록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맺음말

한국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근본 이유는 교회가 돈에 간혀있고 성도는 성공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동안 씬 없이 이런 한국교회를 경고해오셨습니다. 한국교회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치유불능의 상태로 빠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너지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런 결단의 순간에 필요한 사람은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온 몸으로 끌어안고 울며 회개하며 기도하며 희망을 품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할 때,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회복과 갱신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 성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신흥식 장로 | 언덕교회

1. 들어가는 말

제목의 순서를 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완강하게 사양했었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언덕교회가 분란을 겪으며 쪼개지는 과정에서 치유나 해결을 위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죄책감으로 인해 그 어디에도 나설 자격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 저는 공자의 연륜관(15:지학, 30:이립, 40:불혹, 50:지천명, 60:이순, 70:종심소욕불유구)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생각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신앙의 연조가 쌓일수록 더 혼란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 강의나 발표라기보다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고민과 갈등을 같이 정리해보고 해법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교회문제의 유형

1) 지난 10년간 교회문제 상담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재정전횡 98
 - (2) 행정전횡 79
 - (3) 부당치리와 표적설교 71
 - (4) 교회건축과 매매 38
 - (5) 목회자의 성폭행 27
 - (6) 허위이력과 청빙문제 24
 - (7) 설교표절 및 이단적 설교 12
 - (8) 교회정관 9
- (숫자는 185개 교회의 복수 해당 사항 숫자임)

위의 유형에서 교회세습이 안 나타나는 것은 아직 세습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의 원인

- (1) 목회자의 사제적 권위주의
 - 주의 종에 대한 지나친 우대
- (2) 평신도의 우민성과 노예 근성적 맹종, 맹신 본능
 - 사회적 위치가 상당해도 별로 다를 바 없음.
- (3) 평신도의 방관자적 태도
- (4) 기복신앙

- 주의 종을 비판하면 저주받는다.
- 주의 종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 (5) 개교회적 패권주의, 차별주의
- (6) 신자유주의적 시류
 -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 (7) 외형성장주의
- (8) 낭비와 사치
 - 외면당하는 자발적 불편운동
 - 과도한 목회활동비
 - 고급승용차---손봉호 장로의 모범사례
- (9) 신학교 경영의 일탈
 - 교세확장에 집착하여 함양미달의 목회자를 양산하는 행태
 - 철저한 신학공부보다는 경영기법을 터득하라는 성공목회자의 권면

3. 어떻게 할 것인가?

이상에서 교회문제의 유형과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정리해보면 자연스럽게 평신도가 어떻게 하여야 교회를 살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해법을 도출해 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1) 연약한 방법
 - 예수님의 방법, 거룩한 패배
 - 완승지양
- 2) 개교회주의(교회이기주의) 극복
 - 문제의 목회자를 다른 교회로(과도한 퇴직금 불사)
 - 왜 남의 교회 일에 시끄럽게 하는가?(왕성교회, 명성교회 등)
- 3) 나주부정신(주인의식)
 - 아랫물 맑기운동(새사람교회)
 - 목회자와 평신도의 건강한 긴장관계
- 4) 모범정관(교회개혁실천연대)
 - 임기제
 - 권력분점
- 5) 성경공부, 재교육, 올바른 예배
 -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선포하여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산다.(예인교회 정관 제2조)
 - 십자가 동행을 요구하시는(마16:24) 예수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함
 -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목숨을 바치라(마8:35)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요구를 외면하는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해결해야함
 - 가나안성도(청어람아카데미 양희송 대표): 깊이 없는 예배, 세상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 (인혁당사건과 새벽기도)
 -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leaving church to follow Jesus
- 6) 개신교도는 protestant
 - 본회퍼가 혐오했던 값싼 은혜 극복

○예레미야와 같은 예언자적 비관주의----긍정의 힘 경계

긍정은 위기의 징후에 눈감게 만들어 금융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재앙에 대비하는 힘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실패의 책임을 개인의 긍정성부족으로 돌림으로서 시장경제의 잔인함을 변호한다. 이것이 무책임한 긍정주의이다(김원영의 "비관주의자가 될 자유").

7)교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한용상의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중에서 믿음을 너무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바람에 지성이 증발하고 말았다. 대형교회들은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고 못 믿는 것은 죄악이라는 도식 속에 강압적인 교회충성과 신앙운동으로 건강한 사고기능을 퇴화시켰다.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이고, 또 이것이 교회를 키우는 데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함정 속에 이성적 사고와 지성이 파괴되고 합리적인 판단의식이 잠적해 버렸다.

이상과 같은 해법만으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목회자의 책임 못지않게 평신도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왜곡된 신학논리와 생업에 매달려야하는 여건과 성경지식의 열세 등으로 형성된 맹종의 노예근성적 자세를 극복하고 주인의식을 발휘하여 목회자를 도와 교회공동체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평신도가 깨어있어야만 교회지도자들이 권력과 결탁하고 배타적 근본주의를 앞세워 제2의 십자군전쟁, 제2의 종교재판, 제2의 마녀사냥 같은 만행을 저지르는 기독교치욕의 역사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기총의 코미디는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에 대하여 성추행의혹을 제기하여 비난하다가 후원을 중단하니까 노벨평화상후보로 추천해야한다고 법석을 떨었습니다.

어느 대형교단 총회장 길자연 목사의 금권선거를 폭로한 이광선 전총회장은 폭로내용을 효과적으로 이슈화하기위하여 과거 자신의 금권선거를 양심 고백하였다가 둘 다 망하겠다는 판단이 서자 두 사람 모두 없던 일로 하자고 전격 합의해 버렸습니다.

이 외에도 상도교회, 광성교회, 금란교회 등 예를 들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신도가 깨어있고 최소한의 분별력과 사고기능을 발휘했다면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를 뼈아프게 숙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바벨론에 사로잡힌 교회(백종국교수지음)
- 건강한 교회를 위한 가이드 10문10답(교회개혁실천연대 홈페이지)
- 예인교회정관
- 언덕교회이야기
- 모범정관(뉴스앤조이)
- 교회가이사의 법정에 서다(강문대지음,뉴스앤조이)
- 장로교회는 없다(황규학지음,에큐메니칼연구소)

건강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의 보편적 가치 }

최우돈 장로 | 너머서교회

현재 한국 교회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인을 한 마디로 진단하면 교회가 **건강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제를 통하여 저는 먼저 한국 교회의 건강성 문제를 짚어보고, 그 후에 오늘 이 세미나의 주최자이며, 지난 8년 여 동안 건강한 교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며 씨름해 온 ‘개혁교회네트워크’가 그 동안 추구해 온 핵심 가치와, 그 소속 교회들이 목회 현장에서 교회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몇 가지 제도들을 소개함으로써 한국 교회 건강성 회복의 단초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1. 한국 교회 건강성의 두 가지 지표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가늠하는 데는 두 가지의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의 투명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의 민주적 운영**’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한국 교회 건강의 양 날개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 교회가 이 두 가지 문제만 슬기롭게 풀어나가면 상실해 버린 교회 건강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굳이 ‘**한국 교회**’라는 전제를 다는 이유는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다른 나라 교회의 건강성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발제에서는 ‘한국 교회’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1) 재정의 투명성

재정의 투명성은 교회 재정 처리에 있어서 정확성, 적법성, 접근성의 세 가지 원칙을 말하는데, 이것은 회계 처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성**’이란 말 그대로 회계 처리에 있어서 수치 계산이 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수만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확성’은 더 나아가 교회의 재정이 특정인에 의한 의도적인 횡령이나 개인적인 착복 없이 배정된 용처에 계획된 금액을 정확하게 사용하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정확하게 구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적법성**’이란 교회 재정의 사용과 집행 과정에서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되고,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에서 규정된 절차와 논의를 거쳐 투명하게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절차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몇몇 교회 실체들이 밀실에서 용도를 결정하고, 공식적인 의사 결정 기구는 자세한 내용도 모르고 형식적인 거수기 노릇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접근성’은 재정 투명성을 담보하는 핵심입니다. 교회 특성상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은 교회 재정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헌금의 주체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그들은 재정 사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뿐만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비리는 대개 교인들의 알 권리인 접근성을 차단하는 데서 옵니다. 따라서 교회는 재정 집행 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인 보고를 통한 공개는 물론, 교인들이 필요로 할 때 언제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정확성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성과 접근성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의 의식 수준도 교회의 재정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횡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였다면 절차의 정당성이 다소 무시되어도 모든 것이 면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관행이었으며, 또한 목회자들의 제왕적 사고방식과 오랜 권위주의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이 시대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교회의 이런 행태를 용인하지 않고, 최근 목회자들의 재정 전횡에 대하여 법원들은 엄격한 형사적 책임을 묻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은, 재정의 투명성이 교회 건강성을 담보하는 첫 걸음이기는 하지만 재정의 투명성 자체만으로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재정의 투명성과 건강한 교회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재정의 투명성은 기본이고, 이와는 별개로 재정과 관련하여 한국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교회 재정 사용의 각 항목별 ‘우선순위’와 ‘지출 비중’입니다. 각 교회의 재정 지출 항목과 비중을 잘 살펴보면 그 교회의 건강성이 확실히 들어납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한 가지 자료를 소개하고 이 논제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은준관 목사가 쓴 ‘신학적 교회론’이란 저서에서 노치준 교수의 ‘한국 교회 재정 구조의 사회학적 연구’라는 책의 자료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이 자료의 기준 년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책에서 제기된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항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관리비, 운영비, 예배비, 목회자 급여 등의 교회 유지비가 전체 예산의 84%를 차지하는 반면, 선교비 4.8%, 사회 봉사비 2.3%, 교육비 7% 등은 도합 15%가 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겠지만 교회 유지에 전체 예산의 84%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은준관, 신학적 교회론 p48-49 일부 요약). 여기에 최근 한국 교회가 목을 매고 있는 건축비를 감안하여 추론해 보면 한국 교회 건강성의 현 주소가 더욱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 교회의 민주적 운영

영국의 액튼 경이 설파한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경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집중된 권력의 폐해를 가장 잘 표현한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교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돈 문제와 함께 주로 대형 교회 목회자들의 교회 운영에 대한 제왕적인 권력 집중 현상으로부터 유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지향하는 작은 교회 두 종류 밖에 없다는 신광은 목사의 주장을 빌린다면(메가처치 논박), 한국의 모든 교회들은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교회 운영의 민주화에 대한 주된 반론은 교회가 ‘신본주의’를 가장 잘 이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독재자이듯이 교회 운영도 주의 종인 목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신정주의’와 ‘신본주의’를 혼돈한 무식의 소치이거나 상당 부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오해를 가장한 막무가내식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당연히 신본주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신본주의와 반대되거나 모순되는 개념이 아니라 신본주의를 이루는 방법 중의 한 가지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에, 또는 교회에 펼쳐가시는 방법 중에 신정주의도 있고 민주주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신정주의’는 주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던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이 변함은 없지만, 이 때 하나님은 주로 ‘선택’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이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된 사람 또는 민족**을 통하여 그분의 역사를 수행해 가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와 사무엘입니다. 또 그 대표적인 민족이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정주의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런 방법으로 교회에 신본주의를 펼쳐가지지 않았습니다. 즉, 신약시대에는 교회가 신본주의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으로 일부 특정한 사람이나 종교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들에게만 그 분의 뜻을 전달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본질로 하는 **민주주의를 통하여 신본주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논리적, 성경적 근거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 **성경**을 일부 특정 종교 엘리트들에게만 전유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해 주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제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깨달음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여 그 분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의사 결정 방법(행 15:6-11), 또 초대교회 일곱 집사의 선출 과정(행 6:1-6) 등에서 우리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민주적 교회 운영의 근거들을 분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참여’와 ‘동역’, 그리고 ‘평등’과 ‘소통’ 등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들은 주님을 머리로 하는 유기체인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이상적인 가치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는 교회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한 사람, 한 민족으로 대변되는 목사나 종교 엘리트 세우지 아니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나, 특정한 종교 엘리트에게 맡기셨던 그 일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벧전 2:9-10).

따라서 지금은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의 많은 교파들도 그 운영 방식에 있어서 이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 체제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주의 비효율성이나 잘못된 민주주의의 폐해 역시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목욕물을 버리려다 아기까지 내다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실보다 득이 훨씬 더 많다는 점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2. 개혁교회 네트워크의 건강한 작은 교회 운동

지금까지 저는 교회 건강성의 두 축인 재정의 투명성과 교회의 민주적 운영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검증이 없는 이론은 이상론으로 치우쳐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대안 없는 비판은 때때로 탁상공론이 되어 실제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교회의 건강성 문제의 해결책을 논하고 그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서두에 언급한 바와 같이 ‘개혁교회네트워크’의 목회 임상 사례와 경험을 통하여 이 문제에 대한

좀 더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1) 개혁교회네트워크의 핵심 가치

‘개혁교회네트워크’는 ‘건강한 작은 교회들의 연합’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지향하고, 한국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몸부림으로 8년 여 전인 2005년 10월 30일 종교 개혁 주일을 기점으로 창립되었습니다. 현재는 동일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하는 10여 개 교회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작은 연합체입니다. ‘개혁교회네트워크’는 ‘교회개혁실천연대’와 함께, 교회의 건강성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해서는 “건강한 작은 교회가 답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제도화 하고 현장 목회에 적용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개혁교회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첫 번째 가치는 명칭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개혁’입니다.

개혁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중심’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혁은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개혁의 기준이 인간의 생각이냐, 현실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개신교의 탄생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가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예외 없이 인간들의 부패한 본성과 욕심으로 인해 말씀의 본질에서 점점 이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란, 문자 중심주의에 기반한 성경 회귀가 절대 아닙니다. ‘말씀의 본질’, ‘말씀의 정신’에 충실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말씀보다 우위에 있는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 그리고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왜곡된 말씀들을 그 본래의 위치로 환원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뒤집어 말해, 말씀의 본질을 따라가면 그 교회는 개혁적인 교회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교회의 무한 성장을 목표로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역으로 교회가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나가면 무한 성장이나, 대형 교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왜곡은 목사님들의 무식의 소치이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분히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한국 교회는 목사를 제사장으로 바꾸고, 교회를 성전으로 바꾸었습니다.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지우고 부활만을 남김으로써 기독교를 기복화하고 무당 종교화 하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말씀 왜곡의 극치는 “일천 번제”와 같은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종’이란 명분으로 교회 운영에 있어서 독재가 용인되었으며,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기에 일단 교회에 헌금한 돈에 대해서는 주의 종인 목사가 알아서 사용하면 된다는 등 왜곡의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말씀의 왜곡과 잘못된 유전들이 재정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목회자의 제왕적 교조주의를 용인함으로써 교회의 민주화를 방해 하는 중요한 온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혁이란 바로 이처럼 왜곡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 말씀을 본래의 의미와 정신으로 되돌리는 작업입니다.

개혁교회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두 번째 핵심 가치는 ‘건강한 작은 교회’입니다.

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한국의 교회들은 지금까지 성장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왔습니다. 대형 교회는 모든 한국 교회들의 꿈이요 로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와 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네트워크는 ‘작은 교회가 답이다’ 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작은 교회가 답이다’ 라는 주장을 할 때마다 들어오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교회는 다 건강 하나”는 것과 반대로 “대형 교회는 모두가 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이냐” 라는 반론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작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전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다’ 라는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추구하는 가치는 그냥 작은 교회가 아니라 언제나 ‘건강한’이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작은 교회의 규모에 대해서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각자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또 교회의 성숙도에 따라서 그 규모가 달라 질수 있을 것입니다만, 제가 섬기는 너머서교회는 150명 정도를 적정 수준으로 보고 이 규모가 되면 분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작은 교회’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이유는 대체로 교회의 건강성과 교회의 사이즈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교회의 무한 성장 욕구를 제어하고, 그 수단으로서 인위적으로라도 교회의 크기를 상당 부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네트워크 회원 교회들이 그 동안 모든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를 지향하고, 무조건적 교회 성장, 교회 건축을 이야기할 때 홀로 작은 교회, 건물 없는 교회, 건강한 성장을 주장하며, 그 철학과 가치를 추구해 온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8년 여가 지난 지금 개혁교회네트워크가 추구해 온 ‘건강한 작은 교회’ 라는 가치는 한국 교회의 생태계를 조금씩 바꾸어 가는 작은 동력이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관된 것으로 개혁교회네트워크가 추구하는 세 번째 핵심 가치는 ‘교회의 분립’입니다. 네트워크가 작은 교회를 추구한다고 해서 교회의 성장 자체를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생명력을 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지상주의로 가지 않더라도 교회 생태계가 정상이라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네트워크는 이와 같은 자연적인 성장이 교회의 건강성을 해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인위적이면서 건강하게 사이즈를 줄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을 ‘분립’으로 보고 있습니다. 분립은 이와 같이 교회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면 또 다른 건강한 교회를 하나 더 만드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1만 명짜리 대형 교회 하나보다 100명짜리 건강한 교회 100개가 훨씬 더 한국 사회와 교회를 위하여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들은 큰 교회를 지향하는 이유에 대해 “주님의 일을 더 크게, 더 많이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커야 힘이 생기고 큰 힘이 있어야 주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논리가 사실이라면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의 막강한 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일을 우리 교회만이 독점적으로 그렇게 많이 해야만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이 땅에 ‘우리 교회’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일 뿐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여, 또 다른 지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의 교회가 한 일은 나의 교회가 한 일도 되는 것입니다. 백 보 더 양보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큰 일이 있다고 합시다. 그 때 우리 교회만이 독점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옆의 다른 교회와 힘을 합하여 함께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연합이고, 여기에서 연합의 힘이 우러나옵니다.

작은 교회를 지향할수록 연합의 필요성은 더욱 더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가 힘을 합하여 주님을 위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개 교회 주의는 너무나 고질적인 병이어서 연합 사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솔직히 말씀 드리면 개혁 교회네트워크 역시도 아직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의 가치를 배우고 깨달아가면서 이 문제를 점차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2) 핵심 가치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장치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은 ‘성도의 의식 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의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제도의 개혁입니다. 이제 네트워크가 교회 민주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세 가지 핵심 제도를 소개하고 이 발제를 종결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정관 내지 규약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규약대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정관 제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형태이든지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정관은 교회의 모든 구성원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시행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을 반영하여 정관을 개정해야 합니다. 개정 또한 모든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정관대로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교회가 특정인에 의하여 좌지우지 되지 않고 시스템과 제도에 따라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관은 교회 운영에 있어서 특정인의 제왕적 권한 행사를 제어함으로써 교회 민주화를 시행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직분의 임기 제도입니다

임기제는 다른 말로 목회자를 비롯한 특정 대상에게 일정 연한이 지난 후에 재신임을 묻는다는 뜻입니다. 임기가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임기가 없다면 독재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임기가 없고 한 번 위임 목사가 되면 정년까지 가는 것은, 복한을 제외하면 교회가 유일한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년 이후까지 원로 목사를 비롯한 각종 타이틀을 달고 여전히 교회와의 끈을 연결해 가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다만, 신임 투표 제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임 투표가 목사를 내보내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 해임의 수단으로 신임 투표가 오남용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인간이기에 어쩔 수 없이 빠져들게 되는 매너리즘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와 목사 또는 직분 당사자 간에 건강한 긴장 관계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사실은 교회와 당사자, 서로가 윈윈하는 제도로서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과도한 힘과 영향력이 집중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교회의 사유화를 막고, 특정인이 교회의 주인이 되지 않으며,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는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수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목회와 운영의 분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목회 부분과 교회 운영 부분을 딱 잘라서 가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 양자는 서로 맞물려 있고, 서로 섞여 있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신앙 및 말씀과 관련된 부분을 ‘목회’라 보고, 예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을 ‘운영’이라고 구분해 본다면, 이 양자를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 않음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고, 목회자의 제왕적 지위를 약화시킴으로써 목회자에게 과중하게 편중된 힘을 제한하고 균형을 유지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 가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목회와 운영의 분리를 서로의 힘겨루기나 영향력의 확대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주로 이런 제도를 견제와 균형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어느 한편의 과도한 힘의 쓸림을 막아서 서로 견제하도록 하고, 권한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루게 하여, 어떤 조직의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삼권 분립이 그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와 목사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격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보는 이 제도의 목적은 견제와 균형이 아닌 협력과 약점 감당의 차원입니다.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줌으로써, 서로 동역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The 작은교회로 분립하기 -예인교회 분립사례

황영수 집사 | 예인교회

분립의 가치

1. 분립의 역사

한국교회의 분립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1893년 설립된 장대현교회(이전 널다리골교회)로부터 시작된 좋은 전통입니다. 장대현교회는 교회 설립 10년 차인 1903년에 남문외(밖)교회를 분립했고, 다시 2년 뒤에 사창골교회를, 다시 1년 뒤에 산정현교회로 분립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후에 서문외(밖)교회를 분립하였으며, 그 후 15년 동안 전국에 39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분립은 한국교회 태동 때부터 좋은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인교회는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에 따라 교회 분립의 정신을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2004년도에 작성된 교회 분립에 대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 지나친 성장일변도의 정책을 지양하고, 성도들 간에 진정한 공동체성 강화를 위해 성도가 적정인원 이상일 때 교회를 분립한다. 분립한 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돕고 형제교회로서의 연합을 추진한다.” 예인교회는 적당한 때가 오면 분립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2. 예인교회의 분립

한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적정인원이 있습니다. 이를 ‘공감집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절친의 숫자는 12명입니다. 물론 개인차에 따라 어떤 사람은 10명도 안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5명 이상과 깊은 공감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지만 20명을 넘기 어렵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진화인류학자 로빈 던바 교수는 1993년 [사람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필요한가?(How many friends does one person need?)]라는 책에서 한 사람에게 적절한 친구의 숫자는 사람의 뇌 용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평균 150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감집단처럼 절친은 아니지만 대략 150명 정도가 한 사람이 인간관계를 열어갈 수 있는 적정숫자입니다. 이 150을 로빈 던바 교수의 이름을 따라 던바 넘버(Dunbar's Number)라고 부릅니다. 즉 사람은 12명 정도의 절친과, 150명 정도의 친한 관계를 갖고 살 때 가장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잘 운영되는 마을 21개를 대상으로 인원을 조사해보았더니 마을 구성원이 평균 147.8명이었습니다. 한 마을 구성원이 150명 정도면 특별한 조직 없이 마을이 안정적

으로 운영된다는 반증입니다. 복잡한 위계질서, 규칙, 규율이 없어도 잘 운영되는 숫자가 150명입니다. 그러나 200명, 300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두 개의 조직, 파벌이 생겨서 마을은 함께 하기 어렵게 됩니다. 물론 문명의 이기(利器)로 인해 현대 사회는 그 범위가 조금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군대의 중대 편성입니다. 중대의 규모는 200명 정도 됩니다. 함께 한 가지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인원이 200명으로 보고 중대규모를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한 명의 목사가 목회할 수 있는 교인수를 200명에서 300명으로 봅니다. 그 이상을 넘어서면 목사와 성도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교회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회의가 많아져 비효율적이고, 조직이 생기면 통제, 규제를 시작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작정 인원 성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예인교회 초창기부터 해왔던 일입니다. 왜 숫자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이 숫자가 건강한 공동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예인교회는 2010년 10월 3일 교인총회를 통해 예인교회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때 정관으로 편입된 내용이 31조(분립)입니다. “본 교회는 복음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교인이 25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분립을 위한 추진 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해 교인총회에서 의결해 확정 시행한다.” 그리고 등록교인이 250명에 육박한 2011년 10월 30일 8명의 분립추진위원을 임명하였고, 2012년 3월 11부터 분립추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 분립의 가치

사도행전 2장은 기독교인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 말씀 중 44-45절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소통을 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⁴⁵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이 구절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소통이 아주 잘 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흔히 소통하면 대화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화는 소통의 단계로 따지면 낮은 단계입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물건 통용, 소유 공유가 일어납니다. 위 구절을 헬라어 원문에 보다 더 가깝게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고통당하도록 놔두지 않을 정도로 서로 극진히 사랑했으며, 한 사람이 빈궁한 지경에 처하면 풍족한 사람들이 약한 형제를 돕기 위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들은 각자의 소유를 그대로 갖고 있었지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함께 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역지로, 조직적으로가 아닙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 식구에게 그 사람의 소식이 저절로 전해집니다. 모두 나서서 대화를 통한 위로, 권면은 물론 물건 통용, 소유 공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누구도 그 일에 대해서 힘들다고 하지 않는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예인교회에 등록한지 2-3년 되지 않는 가족들이 보기에 교회 분립은 갑작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립은 예인교회 초창기부터 나뉘던 주제로 지난 10년 동안 계속 나뉘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분립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분립은 개(個)교회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기에 해야 합니다. 교회 성장이 목적이라면 한 교회를 가능한 크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한 교회보다 마을마다 건강한 작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분립은 개(個) 교회 성장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둘째, 분립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면 참여할 준비된 성도들과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요즘 ‘한해에 2천 교회가 개척되고, 3천 교회가 문을 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 홀로 세운 교회는 3년을 못 버티고 사라집니다. 건강한 성도들이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세움으로 한국교회의 미래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인교회도 부패하지 않고 건강해집니다.

셋째, 분립은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예가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바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입니다. 물론 더 작을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이 한꺼번에 모였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또한 소통은 물론 유무상통(有無相通)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자연히 그 규모가 클 수 없습니다.

예인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꿈꾸고, 다음세대를 세우고,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교회 분립을 꿈꾸었습니다.

분립진행 과정

■ 2010년도

- 10.3(주) 주일 1부 예배 직후, 복사골문화센터 514호(이하 호수만 기입) / 임시총회

_분립 관련한 정관 개정

_제8장 교회분립 “제31조(분립) 본 교회는 복음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 교인이 25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해 교인총회에서 의결해 확정 시행한다.”

■ 2011년도

- 5.30(월) 나들목 / Post 예인 첫 모임

_중장기적인 교회 방향(나눔, 분립, 교제) 논의

- 11.20(주) [분립추진위원회] 구성원 7명 임명

■ 2012년도

• 2.26(주) 주일예배 후, 514호 / [분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모임

_등록교인(세례받은 청년부 이상의 등록 교인) 250명이 넘어선 시점을 기준으로 분립추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도록 요청.

_준비팀 조직구성, 일정논의, 전체적인 개요 및 정신 설명.

• 3월~9월초 분립추진위원회 활동 / 약10회 걸친 회의를 통해 [분립교회 모델안] 작성.

_4.29(주) 512호 / 분립추진위원회 회의

- 4월 기준으로 등록교인 250명 넘어섬.
- 개척교회로서 10여년 전의 예인교회의 모델은 현실성이 떨어지며 도시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교회모델을 고심.
- 최종적으로 분립교회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에 제출하는데 까지 활동하도록 함.
- 초기 3~6개월 단위의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함.
- 다양한 분립사례와 건의사항 논의(담임목회제, 순회목회제, 설교목회제, 모교회와 분립교회의 인원규모를 50대 50 등).
- 분립희망자를 선모집하며, 분립교회모델은 분립희망자군에서 3-6개월 내로 정리.
- 2013년 7월(예인교회 설립11주년) 경에 분립 진행하며, 분립은 자원을 원칙으로 함.
- 분립의 합리적 이유를 재차 정리함(①목회적 관점에서 적정교인규모(청장년 약 250-300명)가 있으며, ②공동체로서의 교제의 한계가 발생, ③건강한 교회는 성도간의 밀도 높은 교제와 공동체성인데 2-300명이 넘어가면 확인이 어려움).
- 분립교회의 기본가치를 현 예인교회가 추구하는 '모토, 정관, 사역, 나눔(소유의 최소화), 운영위원'와 함께 하도록 함.
- 분립인원 30명 이하일 경우, 예인교회가 재정자립이 어려운 분립교회에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하기가 어렵고, 분립교회 역시 자립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분립추진을 잠점 중단하기로 운영위에 건의.
- 교육부서 분립에 대한 논의.

• 6.10(주) 주일2부 예배 후, 514호 / 분립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7월 1주~2주 아둘람별 모임 / 분립교회 모델에 관한 설문조사

_분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분립교회 모델(안)]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7.29(주) 오후2:00, 514호 / 분립간담회

_참석 : 각 아둘람 섬김이와 서기, 분립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37명 참석)

• 9.2,9.9(주) 주일예배 중 / 분립관련설교1,2 (정성규 목사)

• 9.23(주) 주일 1,2부 예배 / 분립교회 모델안에 대한 설명회(분립추진위원장)

• 10.14(주) 주일2부 예배 후, 514호 / 임시총회(분립교회모델안 건)

• 11.4(주) 주일1,2부 예배, 청년부 예배 / 무기명 분립참여자 명단 조사

_분립참여의사표명 : 46명(1,2부 예배 : 42명, 청년부 : 4명)

• 11.25(주) 분립교회담임목사 추천 공문 및 이메일 발송

_개혁교회네트워크,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 운동 등 교회개혁운동단체 및 관련 참여자에게 추천공문 발송(40여 단체 및 개인)

• 12.27(주) 주일1,2부 예배, 514호 / 제1차 분립참여자 기명 조사

_분립참여자 : 31명(장년 25명, 청년 6명/중고등부 이하 미포함)

■ 2013년도

• 1.6(주) 주일1,2부 예배 / [분립준비위원회] 임명

_분립참여자 3명, 예인교회 2명, 운영위원 3명, 교역자로 구성

• 1.13(주) 나들목 / 분립준비위원회 회의

_분립교회 담임목사 청빙절차 및 평가방법에 대한 논의 및 결정

- 서류와 면접(교통비 전달)을 통한 2명 선정.
- 금요중보기도모임과 주일1,2부 설교, 교인간담회를 통해 평가.
- 교인총회를 통해 확정하기로 함.

• 1.19(토) 나들목 / 분립교회 담임목사 후보자 분립준비위원회 면접(3명)

• 1.25(금), 1.27(주), 2.1(금), 2.3(주) 나들목, 514호 / 담임목사 후보자 2명 금요중보기도모임, 주일1,2부 예배, 교인간담회

• 2.24(주) 주일통합예배 직후, 514호 / 임시총회

_분립교회 담임목사 청빙승인 및 분립기명 참여자 명단 공개

• 3.3(주) 오후2:00, 514호 / 분립준비위원회-분립기명 참여자 간담회

• 3.10(주) / 분립준비팀 임명

_ [분립준비위원회]에서 [분립준비팀]으로 개편하고 위원 10명(분립참여자 대표-4명, 분립추진위원 -4명, 담임목사-2명) 임명

• 3.17(주) 나들목-7.14(주) / 분립준비팀 모임

_장소섭외, 정관 검토, 분립교회 명칭 공모, 문서관리 등 논의 진행.

_추가참여자, 참여자에 대한 분립교회 담임목사의 심방 건, 분립 간담회건 논의.

_분립간담회 결과 검토, 교회이름(명칭) 확정절차 논의.

• 5.19(주) 주일 예배 직후, 복사골문화센터 5층 로비 / 분립교회 명칭 결정

_공모를 통해 명칭을 추천받고, 교인 투표를 통해 확정.

- 분립준비팀에서 선별한 8개 명칭 중, 분립참여자간담회 참여자 투표를 통해 선정된 ‘더작은교회’, ‘들풀 예인교회’, ‘예인 미추홀교회’(이상 3개)를 전교인 스티커투표를 통해 ‘더작은교회’로 확정.

• 6.2(주), 9(주) 오후2:00, 513호 / 분립참여자 간담회

_예배 장소 후보지 집중 검토, 정관 초안 검토

• 6.16(주) 주일1,2부 예배, 514호 / 제2차 분립참여자 기명 조사

_분립참여자 : 37명(장년 31명, 청년 6명)

_설립헌금 방법 논의, 향후 일정 논의

_분립 설립헌금(총 1천1백 만원) 및 7천 만원 재정 지원일정 확정.

• 7.21(주) 주일통합예배, 514호 / 분립파송

_예인교회설립11주년 예배 중 분립파송식 진행

- 분립파송 교독문 낭독, 분립경과보고, 분립축하 영상, 분립참여자 특송, 기념품 전달 등
- 분립참여자 : 총83명(장년50명, 청년10명, 중고등부4명, 초등부10명, 영유아부 9명)

분립교회 담임목사 청빙

1. 교회 분립과 분립교회 담임목사 청빙과정

: 규약 31조(분립) 본 교회는 복음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교인 25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해 교인총회에서 의결해 확정 시행한다.

• 2012.10.28.

- _ '분립추진위원회'에서 분립교회 담임목사 청빙을 맡아 진행하기로 함.
- _ 분립교회담임목사는 교회개혁운동에 참여중인 단체, 목회자, 교회에 추천의뢰서를 보내어 추천받기로 함

• 2012.11.25.-2013.1.12.

- _ 분립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공문 발송(40여 단체와 개인).
- _ 6명 추천을 받아 각자 교회소개를 하고 자원여부 확인.
- _ 최종적으로 3명이 분립교회담임목사 후보로 지원함.

• 2013.1.19.

- _ 1차 분립추진위원회 면접을 통해 2명을 교회에 소개 함.
- _ 1명 당 주일 설교 2회, 금요기도회 1회, 간담회 1회씩 기회를 주기로 함.

• 2013.1.25.-2.3

- _ 후보자 소개를 마침

• 2013.2.24.

- _ 임시총회 전영준 목사 최종 결정

• 2013.3.3.

- _ 전영준 목사를 분립교회담임목사로 청빙함.

2. 청빙 관련 자료

1) 공고내용

- 1) 예인교회에서 분립 교회의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 2)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2동 544-4호 가나베스트타운 412호(우 420-864)
- 3)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학력: 정규 신학대학원 M.div. 이상
 - (2) 경력: 목사 안수 후 담임목사, 혹은 부목사 경력 5년 이상
 - (3) 국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3) 제출서류 :
 - (1) 별첨 자필 이력서(양식의 공간 부족시, 별지 기재 무방함)
 - (2) 목회 계획서(목회 동기, 철학, 비전, 바람직한 교회상): A4 4매 이상
 - (3) 자기 및 가족 소개서(성장기의 자신과 가족의 신앙 이력을 상술하기 바람)

- (4) 주민등록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5) 제출 기간: 2013.1.12.(토)까지
- (6) 제출처: 예인교회 사무실. 우편 : 교회 주소로

4) 참고사항

- (1) 제출 서류는 우편으로만 접수함(‘청빙 서류 재증’ 표시 요망)
- (2) 본 교회 청빙에 관한 연락 및 기타 요청은 이메일로 알려주세요.
- (3) 청빙관련 문의 : 010-9553-2618(정성규 목사)
- (4) 서류는 등기로 발송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예인교회 소개

- (1) 2002년 7월 21일 설립된 예인교회는 2013년 교회 분립(분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2) 분립 교회의 기본 틀은 아래와 같이 교인총회(2012.10.14.)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① 분립 교회의 정체성

- ㉠ 다음 6가지 원칙은 분립교회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
_건물 무소유 / 운영위원회 제도 / 목회임기제 / 나눔 사역 / 직분 호칭제 / 정관제
※상기 내용이 분립교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 분립교회의 모토와 정관의 시행세칙은 분립교회의 필요에 따라 수정 변경할 수 있다.

② 분립 세부사항

- ㉠ 인원 규모: 자원인원은 청장년으로 최소 50명 ~ 최대 70명의 범위로 한다.
- ㉡ 성도 지원방식: 80% 자원 + 20% (기획 : 권면, 설득, 이해 등)
※분립교회 참여 자원자가 30명 이하일 경우는 운영위-분립위에서 분립추진에 대하여 재 논의한다.
- ㉢ 목회 형태
_담임목회 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분립교회를 담당 할 목회자의 청빙은 운영위에서 추진한다.
- ㉣ 중심 사역
_부친(예인)교회 사역 내용을 참조하나, 분립 지역에 대한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역 방향을 기획하도록 한다.
- ㉤ 분립교회 위치(지역)
_인천지역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구체적 위치는 차후 결정한다.
- ㉥ 재정 지원
_분립교회 지원을 위한 <특별헌금>을 추진한다.
_분립교회 재정 지원은 특별헌금을 포함하여 칠천만원(W70,000,000)으로 한다.
- ㉦ 공동운영위원회 운영
_모 교회와 분립교회의 교류와 소통을 위해 <공동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
- ㉧ 분립교회 명칭
_분립교회 자율에 따른다.
※궁금한 내용은 어떤 것도 좋습니다.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6) 목회 계획서

- (1) 목회에 대한 당신의 소명과 목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적어주십시오.
- (2) 목사 후보생 또는 목사로서 교회나 노회(지방회)에서 일했던 경험을 적어주십시오.
- (3) 여러 가지 목회 영역 중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주십시오.
- (4) 목회를 하면서 겪었던 문제 상황들을 적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적어주십시오.
- (5) 교회의 5가지 역할(예배, 설교, 교육, 친교, 섬김)에 대한 목회 계획을 자세하게 적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등).
- (6) 예인교회에 대한 이해를 적어주십시오(교회 성격, 모토, 사역, 교회개혁운동, 역사 등)
- (7) 지원하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어떤 목회계획이 있는지 적어주십시오.

7) 자기 및 가족 소개서

8) 추천서
 (아래의 범주에 따라 각 질문에 해당 하는 한 분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관계를 적어주십시오.)
 (1) 교회사역과 관련되어 알고 있는 한 분을 적어주십시오.
 (2) 당신이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한 분을 적어 주십시오.
 (3) 목회하는 사람으로서의 당신을 알고 있는 한 분을 적어 주십시오.
 ※분량은 스스로 판단해서 가능한 자세히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는 꼭 자필로 하시고, 목회계획서, 자기 및 가족 소개, 추천서는 컴퓨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2) 1차 분립추진위원회 심층면접

청빙목사 평가지

[잘한 3점, 보통 2점, 못함 1점]

기준	관찰	가	나	다
인격	• 건강한 인격형성을 위해 받은 교육/훈련은 무엇인가?			
	•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덕목은 무엇인가?			
	•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인가?			
	• 자신의 한계는 어떤 것이 있는가?			
소명	• 목사로서의 부름은 무엇이며, 확신하는가?			
	• 만인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잘 적용하는가?			
	•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무엇인가?			
목회	• 암 진단 받은 성도를 심방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 당신은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			
	• 불신자 전도, 익명의 그리스도인 전도에 대한 방안이 있는가?			
	• 담임목사의 처후(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험	• 목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은 있는가?			
	• 취미는 있는가?			
	•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는가?			
	• 질병은 있는가?			
가정	• 가정은 행복한가? 무엇이 가정의 행복을 만드는가?			
	• 자녀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 부모님은 어떻게 모시는가?			
	• 아내와 자녀는 목회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참하는가?			
예인교회	• 예인교회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는가?			
	• 성도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예인교회의 모토는 무엇이며,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가?			
	• 분립교회와 예인교회가 공유한 6가지 정신을 이해하는가?			
교회개혁	• 교회개혁에 대한 이해와 열망이 있는가?			
	• 한국교회의 어떤 부분이 개혁되어야 하는가?			

	• 교회개혁운동단체에 참여하고 있는가?			
지역사회	•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있는가?			
	•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 할 방법은 무엇인가?			
	• 인천은 어떤 도시라고 생각하는가?			
합 계				

3) 2차 면접(교인과의 만남)

(1) 설교와 간담회

• 1.25 금요모임(밤 9:00) : 30분 설교, 30분 기도회 인도 / 나들목

- 설교 주제 : 영적침체 극복

다음 인물 중 한 명을 택하여 영적침체를 회복에 관해 설교 하세요.

① 사울 ② 다윗 ③ 엘리야 ④ 아브라함

• 1.27 주일예배-1부(오전 9:30), 2부(오전 11:30) : 설교 40분 이내 / 복사골문화센터

- 설교 주제 : 건강한 교회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요한계시록 2-3장)중, 한 교회를 택하여 건강한 교회에 대해 설교 하세요.

• 1.27 간담회(오후 1:30) : 브리핑(자원서 내용 중심으로) - 30분, 질의 응답 - 60분 / 복사골문화센터

(2) 개인소개용 안내물 제작/교인대상으로 배포

① 작성양식 : A4 1장 - 13포인트, 줄 간격 200%

② 작성원칙 : 교우들에게 공개해도 무리가 없는 내용으로 작성하며, 개인 소개 내용은 교회 내 등록교우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로 2회 공유하고, 설교 당일 교인들에게 나눠줄 인쇄물로 제작, 배포 예정, 얼굴이 잘 나온 사진 제출 요망

(3) 2차 금요기도회 인도, 설교, 간담회 교인평가지

① 금요모임(밤9:00) : 30분 설교, 30분 기도회 인도 / 나들목 / 설교 주제 : 영적침체 극복

• 000목사 금요모임질문지

질 문	점수				
	1	2	3	4	5
•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인가?					
• 당신의 영적 침체를 이길 감동, 깨달음, 도전이 있는가?					
• 기도회 인도는 적절한가?					
합 계					

② 주일-1부(오전 9:30), 2부(오전 11:30) : 설교 40분 이내 / 514 / 설교 주제 : 건강한 교회

• 000목사 주일예배질문지

질 문	점수				
	1	2	3	4	5
•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인가?					
• 교회개혁 또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도전 되는 설교인가?					
• 당신의 삶에 구체적인 도전이 되는 설교인가?					
합 계					

③ 간담회(오후 1:30) : 브리핑(자원서 내용 중심) 30분, 질의응답 60분 / 복사골문화센터 514

• 000 목사 주일 교인 간담회

질 문	점수				
	1	2	3	4	5
• 목사로서 소명(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가?	1	2	3	4	5
• 예인교회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가?	1	2	3	4	5
• 건강한 교회, 교회개혁을 위해 일할 마음이 있는가?	1	2	3	4	5
• 교회를 위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1	2	3	4	5
합 계					

3) 후보자 소개 (전영준목사/현 더작은교회 담임)

분립교회 담임목사후보자

- 전 영 준 목사(1969.7.22)
- 주소지 : 부천 원미동
- 출신학교 :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 소속교단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 가족 : 정수진(처), 하리, 환희(2녀)



● 자기소개 : 저는 1969년 7월 22일 인천에서 태어나 줄곧 수도권에서 성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고등학교, 성결대 신학과, 서울신대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하였고, 영국 Birmingham Christian Collage에서 선교학 MA과정을 수료하였습니다. 1996년 분당 창조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여 수원 세광교회, 서울 월광교회에서 전임전도사로, 2003년 4월 25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8회 중부지역총회에서 목사로 안수 받았습니다. 경기 광주교회에서 3년간의 부목사(교구/청년/찬양사역)로 사역 후, 영국 본머스 한인교회, 코벤트리 한인교회에서 5년간 협동목사로 섬겼으며, 2009년부터 2011년 초까지 영국더림한인교회 담임사역을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귀국 후, 여주성결교회에서 부목사(교구/청년/찬양사역)로 섬겼습니다. 특별히, 영국에서의 7년 6개월 동안의 다양한 경험은, 앞으로 저의 목회사역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흠뻑 땀 흘리며 기도 청소 아르바이트, 피자 및 중국집 배달 등을 하며 성도님들의 힘든 일상의 삶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경험뿐만 아니라,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유럽 KOSTE

(유럽한인유학생집회)에서 찬양사역을 섬기며, 유럽 각 나라의 많은 선교사님, 청장년 성도님들과의 좋은 인프라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정수진(기독교교육전공)과 함께 현재 홈스쿨링으로 자녀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자녀로 하리(중1), 환희(초4) 2자매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기보다는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작지만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기도록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습니다(병력 : 수도방위사령부 제30단 현역병장 제대-군종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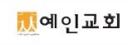
- 전영준 목사 일정
 - 2.1(금) 오후 9:00 금요중보기도모임 설교 및 기도모임 인도 / 나들목
 - 2.3(주) 오전 9:30, 11:30 주일예배 설교 / 복사골문화센터 514호
 - 2.3(주) 오후 1:30 교인간담회 / 복사골문화센터 514호

교회분립 관련 규약

제8장 교회분립

제31조(분립) 본 교회는 복음전파의 목적과 교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교인이 250명을 초과한 때로부터 교회분립을 위한 추진기구로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립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분립에 대한 시기, 방법 등은 '분립추진위원회'에서 안을 만들고 운영위원회가 최종안을 확정해 교인총회에서 의결해 확정 시행한다.





{ 수평적 교회 이야기

예수촌교회는 진행 중...

김태민 목사 | 예수촌교회

1. 신약교회인가? 로마교회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왕국 운동으로 시작되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땅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 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교회는 그 분의 몸이다. 따라서 몸인 교회는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집합적으로 표현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밖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 표현한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 왕국의 원리를 가지고 세워져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로마 제국에 이르러 교회는 이방종교의 관습과 예식, 그리고 로마제국의 통치 방식을 흡수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왕국을 드러내야 할 교회가 로마제국의 정신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이다. 교회는 이방종교의 시스템을 거의 모든 부분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왕국 운동이었던 교회를 종교적 행위가 중심이 되는 제도적 교회로 변질시켰다. 성직제도의 차용, 예배 의식의 도입, 계급적 교회구조, 일요일 중심의 종교화, 교권의 권력화, 개인 중심의 영성적 추구, 현세 중심적 기복을 추구하는 영성, 건물 중심의 모임구조, 특정 인물이나 장소, 물품, 상징 등의 신성화, 대형 교회화 등등... 사람들은 교회가 이 땅에서 시작된 하나님 왕국으로 보기보다는 나중에 천국갈 수 있는 티켓을 만들어주는 기관으로 이해했다. 에클레시아적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표현해야 할 교회가 가장 현세적응적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자 교회의 본질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현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바로 로마제국에 적응하려던 교회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새포도주는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처럼, 본질은 본질에 합당한 틀을 요구하며 그러한 틀이야말로 본질을 제대로 드러낼 수 있다. 주류 교회가 이처럼 이방종교와 로마제국의 시스템을 받아들이자 이에 저항한 소수의 교회들이 있었다. 그들은 신약에 기록된 하나님왕국의 복음과 교회의 원리를 교회 속에 구현하고자 했다. 주류교회들의 강력한 제재와 악의에 찬 왜곡, 그리고 물리적 핍박 등이 있었지만, 진리를 향한 이들의 고집은 역사의 면면에 수많은 피를 뿌리면서도 신약적 교회가 그 명맥을 이어오게 한 원동력이었다.

신약에 기록된 교회의 원리를 따라 살고자 했던 무리들은 마침내 종교개혁 시대에 이르러 진정한 자유를 얻는 듯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의 교회관은 기존 로마교회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교회의 주요제도와 시스템 역시 이름만 바뀌었을 뿐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루터는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면서도 "교회에서의 말씀 사역은 너무나도 중요하여 오로지 성직자만이 그 사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기존의 사제 중심의 교회와 거의 다를 것이 없는 사고를 드러냈다. 그들의 개혁은 불완전한 개혁이 되었으며 개신교는 로마교회의 또 다른 아류에 불과했다.

2. 재세례파

그때,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에서 참혹한 핍박을 받는 무리들이 있었다. 그들 자신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그들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편에서는 그들을 '재세례파'라고 불렀다. 그 당시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이 운동은 기존의 종교개혁을 불완전한 개혁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성경에 절대 순종하는 급진적인 제자도를 주장했다. 당시 카톨릭과 개신교는 모두 국교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았던 것이다. 국교는 당연히 '유아세례'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그 나라(또는 제후국)가 곧 교회였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자는 당연히 국민이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유아세례였다.

'재세례파'는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교회는 국가와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믿음의 고백에 의한 세례(침례)를 실시했고, 제자도, 공동체, 그리고 비폭력을 주장했으며, 성도 위에 군림하는 사제직을 거부했다.

이러한 믿음에 동조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고백에 의해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카톨릭과 루터교회, 그리고 칼빈에 의한 개혁교회들은 긴장했고 마침내 핍박의 칼을 빼들었다.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그들을 비방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불태웠다. 그들은 핍박을 피해 지하나 숲 속에서 한 밤중에 모임을 가졌다. 로마제국이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자행되었다.

재세례파 운동이 일어난 수십 년 동안 1만여 명의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그들 대부분은 화형에 처해지거나 수장되었다. 이러한 잔혹한 핍박에 의해 그들 대부분은 유럽에서 살 수 없었고 러시아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도 역시 핍박을 받게 되자 그들은 북미와 남미 대륙으로 이주했고 그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대부분 재세례파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살았다. 현재, 메노나이트교회, 후터라이트 공동체, 아미쉬 등이 재세례파의 후손들이다.

교회사에서 이들의 역사적 흔적은 극히 미미하거나 왜곡되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은 재세례파 운동을 핍박했던 기존의 교권에 의해 악의적으로 왜곡되거나 은폐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윈스터시에서 일어났던 천년왕국운동을 마치 재세례파의 전부인양 왜곡함으로써 인해 재세례파는 폭력적이고 이단적인 운동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었다. 윈스터의 천년왕국 주의자들은 재세파 운동 초기의 여러 갈래 중의 하나였고 이들은 곧 소멸되었으며 이후 형성된 재세례파의 주류와는 전혀 신학과 삶을 살았던 그룹이었다.

사실 재세례파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 형제사랑과 비폭력 운동이었다. 그들 가운데 전해 내려오는 일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종교 경찰에 쫓기던 재세례파 형제가 있었다. 그들은 강을 건너고 있었는데 그를 뒤쫓던 종교 경찰이 얼음이 깨지는 바람에 물에 빠지게 되었다. 재세례파 형제는 곧 뒤돌아 가서 종교 경찰을 강에서 꺼내 주었고 그는 다시 잡혀서 목숨을 잃게 되었다. 왜 이렇게 어리석기까지 한 행동을 하였을까? 바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죽음을 무릅쓰고 순종하고자했기 때문이었다.

아나뱃티스트와 예수촌교회

1993년 춘천에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현대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약교회이기 보다는 제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로마교회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한 이들이었다. 2000년 역사의 대부분의 비

극적 사건은 로마교회의 정신을 추종하는 타락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현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무관심과 손가락질 역시 로마교회화한 교회들에 대한 분노였다. 결국 문제는 교회였다. 이들은 무너진 교회의 모습을 아파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다. 이들은 약 3년간의 스터디와 토론을 통해 신약에 기록된 참된 교회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애썼다(스터디 했던 책자 목록 참고).

그런데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참된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교회사 곳곳에 보석처럼 숨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중에서 우리를 가장 감동하게 만들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재세례파였다. 우리는 재세례파의 정신이 우리가 찾던 신약교회의 원리와 일맥상통함을 알게 되었다.

예수촌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는 북미에 있는 재세례파의 후손인 메노나이트교회와 교류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재세례파의 정신을 나누기 위해 기꺼이 여러 명의 선교사를 한국으로 파송했고 서로의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재세례파의 정신을 한국에 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여 한국아나뱃티스트센터(KAC)를 세워 출판물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3. 신약교회의 원리 : “그리스도의 몸”

1996년 1월에 예수촌교회는 시작되었다. 몇 가정이 모인 작은 모임이었지만 오랜 동안의 고민과 노력의 작은 결실이었다. 예수촌교회는 교회를 시작하면서 신약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실제에 적용하고자 했다.

예수촌교회가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로 선언했던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유기체/공동체)이라는 원리였다. 공동체성은 교회의 본질이자 존재양식이기에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한다. 신약에 기록된 교회의 모든 원리와 삶의 방식은 모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큰 우산에서 비롯되었다.

3.1 몸은 머리를 집합적으로 표현한다.

3.1.1 몸 전체와 몸의 각 지체는 서로 협력하여 머리의 뜻을 표현하도록 되어 있다. 교회는 집합적으로 머리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무리이다. “집합적”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결코 뛰어난 영성을 가진 한, 두 사람의 거장에 의해 표현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팔 하나가 머리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의 주장도 그 개인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없다. 머리와 연결된 다른 지체들과의 “연대”가 중요한 이유이다. 그 “연대”가 가능하고 “연대”가 교회 관계망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세밀한 도로망을 형성하는 것과 같다.

3.1.2 그리스도의 삶, 인격, 명령, 뜻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의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 문화, 관계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교회의 조직 체계, 교회의 각종 모임들, 교회의 관계 형태, 교회의 각종 문화, 교회의 가르침, 교회의 선교 및 사역 방식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모두 동일하게 예수그리스도의 삶과 정신, 인격, 명령 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한 교회의 시스템은 그 교회의 인격이며 수준이다.

3.2 몸의 각 지체는 서로의 성숙을 위해 헌신한다.

몸의 어떤 지체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거나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 각 지체는 서로의 기능을 통해 다른 지체들의 기능과 성숙을 돕도록 존재한다.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은 각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도록 돕는 것과 함께 각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의 성숙을 돕는 관계망을 형성하는데 있다.

3.2.1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를 위해서는 교회에 고립되어 있거나 관계망에서 소외되는 지체들이 있어서는 안된다. 즉,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3.2.2 모두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서로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격려와 열린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3.3 몸됨, 성령의 코이노니아의 기본 토양

고린도후서 13:13절에 기록되었 듯이 우리는 성령의 일차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이 교회를 성숙시키는 것임을 믿는다. 성령의 코이노니아, 즉 성령의 교통은 각 지체들의 관계망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그것을 통해 지체들을 성장시키신다. 그것은 교회가 몸으로서 존재할 때 가능하다. 즉 몸으로서의 교회는 성령께서 각 지체들을 통하여 서로를 성숙시키시는 가장 중요한 토양이다. 만일 교회가 몸, 즉 다른 표현으로 말해, 서로 연결되어 지어진 건축물이 아니라 그저 쌓아 놓기만 한 벽돌 무더기에 불과하다면 고린도서의 표현대로 성령은 그 안에 거하실 수 없으실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교통”하실 수 없다.

3.4 관계에의 헌신, 결단과 함께 시작된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몸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지 못하면 정상적인 교회생활이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지체 스스로가 몸의 한 지체로서 몸의 원리에 합당하게 기능하겠다는 결단이 없으면 교회의 몸됨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날 교회는 많은 사람이 몰려 있는 것 같지만 각자 개별적인 영적 성장을 추구한다. 이것은 지체의 성장을 주로 설교나 성경공부에 의존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지식을 양성할 수는 있지만 관계인을 양성할 수는 없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령의 코이노니아는 관계를 통하여 일하신다.

신약에는 교회에서 권면과 경책(책망)이 매우 중요한 성숙의 도구였음을 보여준다. 허약한 관계는 권면과 경책을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한 관계는 성숙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서로 그저 편하고 표면적인 신앙생활, 개별적이고 고립된 교회생활에 그치고 만다. 몸된 관계망은 내가 성숙하기 위해 그 관계망에 대한 헌신의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다.

4. 그래서 예수촌교회는 이렇게 산다

위와 같은 원리 하에서 예수촌교회는 여러 다양한 영역에 이 원리를 기본으로 하는 교회 구조와 문화를 가지고자 노력했다.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 구조를 통해 증명되기 때문이다.

4.1 담임목사제가 아닌 복수 리더십

- 성경적 교회의 모습은 예수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담임 목사가 있는 많은 교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카리스마를 가진 한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없다. 우리는 여러 리더들이 문자 그대로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교회의 구조를 추구한다. 따라서 여러 지체안에 있는 리더들은 복수일 수밖에 없고, 이 복수 리더십으로 예수촌 교회를 섬긴다.

- 신약성경은 초대 교회에 여러 장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개인이 교회의 리더십 전부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며 한 사람이 모든 은사를 동시에 가질 수는 없다. 몸뒹의 원리에 의해 리더십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고 사역에 따르는 책임도 공유해야 한다.

- 제도적 장치(신학교)에 의해 주어진 리더십보다 회중들 속에서 확인된 영적 권위가 리더십에 있어 더 중요하다. 성령과 회중이 주는 리더십은 은사를 기초로 한다. 예수촌교회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숙도와 은사와 열매가 확인된 분들 중에 지체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지체를 리더로 세운다.

- 예수촌교회는 현재 4 가정이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여한다. 리더십 안에서 우열은 존재하지 않으며 리더십 안에서의 의사결정은 주로 만장일치에 의존한다. 리더십의 결정은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4.2 가정교회(셀-고을)

- 예수촌교회는 교회 안에 고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을이 모인 교회라는 인식을 공유해 왔다.

- 주중(주로 수요일)에 5-8가정을 단위로 하는 고을 모임을 각 가정에서 갖는다. 이 모임의 핵심역할은 친밀한 관계성을 형성하는데 있다. 이 모임에서 각자의 고민과 아픔이 나누어지며 함께 알아가고 은사를 통해 서로를 성장시키는 관계망을 형성한다.

- 고을모임 운영은 독립적이며 각 모임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활동들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한다.

- 2달에 한 번씩 고을모임 자체로 주일예배를 한다. 그 안에서 새로운 은사들이 발견되도록 하고 동시에 교회의 분가를 대비하기 위함이다. 또한 한 분기에 한 번씩 다른 고을들과 함께 하면서 교제한다.

- 고을 모임은 1-2년 마다 멤버들을 교체하여 새로이 편성하며 교체의 기준은 최대한 교제를 다양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기준으로 한다.

4.3 은사에 따른 사역개발 및 참여

- 지체들 모두는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와 세상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다. 평신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은사의 우열은 없으며 따라서 지체 간의 우열도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은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한 가장 큰 도구라고 믿는다. 은사는 온전히 교회 전

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모두의 은사가 모두에게 골고루 사용되어지고 그것이 격려되어질 때 교회는 서로를 성숙시킬 수 있다.

- 교회는 직분자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자가 일해야 한다. 직분자 중심으로 일하는 것은 유기체적이 아닌 조직체적인 발상이다. 교회 안에서 은사에 따라 다양한 사역을 담당하도록 격려한다.

- 교회 안에서 뿐만아니라 자신의 은사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섬기는 다양한 사역을 하도록 격려하며 이를 지원한다. 현재 예수촌교회 지체들이 세상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감당하는 사역은 7개이다.

- /V-School (기독교 원안학교) /어글로우(여성을 위한 중보,치유사역)
- /금잔디 봉사(장애인 미술치료 봉사) /부부학교(부부상담,치유)
- /KAC(한국 아나뱃티스트 센터) /시대분별모임
- /새동지(저소득 이혼여성 쉼터)

4.4 주일예배 / 주일성경공부

- 예배 안에 성령의 역동성과 공동체성이 드러나도록 지속적으로 개혁한다. 전가족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며 아이들을 포함한 모든 지체들이 예배의 한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예배담당 일정표 참조).

- 대표기도, 헌금, 설교 외에는 인도자의 자유재량에 의해 인도된다. 획일적인 순서와 예식화를 방지하고 성령께서 더 깊이 운행하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 현재, 예배인도자는 10명, 어른설교자 10명, 어린이설교자 20명 등이 분기별로 예배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체들 가운데 찬양이나 설교 등의 은사가 발견되고 인정되면 누구든지 이에 참여할 수 있다.

- 설교 후에는 지체들이 둘러 앉아 설교에 대해 적용하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 1인 목회자에 의한 축도는 없으며, 예배를 마칠 때는 모두가 다 서로를 위해 축복한다.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며 한 사람의 축복보다는 모든 사람의 축복이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다.

- 주일 성경공부는 6학기제(3년)로 운영되며 성경에서부터 공동체론, 교회사, 조직 신학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서 소그룹으로 이루어진다.

- 예배 후의 애찬은 각 가정이 1개의 음식을 해서 가져와 함께 나누어 먹으며 교제한다.

4.5 의사결정

- 정기리더회의 : 1달에 1회 모여 교회의 지체상황 및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논의한다.

- 확대회의 : 매달 첫주에 리더와 코리더, 셸리더 등이 참여하여 그 달에 있을 여러 사항들을 결정한다. 열린 모임으로 누구든지 참여하여 제안사항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것이 합당할 경우 수용한다.

- 공동체회의 : 한 분기에 1회, 예배 후 지체들 전체가 모여 재정상황과 교회의 중요한 일들에 대해 논의한다.

- 교회에 관련된 일을 한 두 사람의 의사로 결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회의기구를 거치도록 한다.

- 사안마다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만장일치를 기본적인 의사결정방법으로 삼는다. 중요한 사안에 있어 교회 전체의 만장일치를 이끌어내기 위해 리더십은 사안의 핵심문제들을 제시하고 여론을 수렴하며 그것을 취합하여 한 단계 더 나아간 의견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여론을 다시 수렴하는 과정들을 반복한다.

4.6 설문 사역평가 및 1년의 사역방향 결정

교회의 회기는 매년 3월에 시작하며, 따라서 2월에 그 해의 사역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먼저 기도회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나눈다. 그리고 설문을 통해 지난해의 모든 사역(설교도 포함한다)에 대해 평가하며 올해의 사역 방향에 대해 지체들의 의견을 묻는다. 그리고 나서 리더들은 함께 모여 지체들이 나눈 하나님의 음성과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리더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올해의 사역방향과 세부사항, 고을편성 및 사역 중점사항 등을 정리한다. 그렇게 정리된 사역 시안을 1차 공동체회의에 부쳐 시안에 대한 지체들의 의견을 듣는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2차 시안을 만들어 2차 공동체회의에 부치고 그것에 대해 지체들이 동의할 때 비로소 그 해 사역안이 결정되고 시행된다.

4.7 성찬의 공동체성 표현

성찬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것과 동시에, 그 분의 몸을 하나의 떡으로 표현하셨듯이 그 분의 몸된 교회가 하나임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고전10:16-17).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한 바울의 책망은,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과 차별적인 만찬으로 인해 한 몸임을 보여주는 성찬의 의미가 훼손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러한 성찬은 서로를 파괴할 뿐이었다.

예수촌교회는 성찬을 할 때, 서로 화해할 필요가 있거나 돌봄이 필요한 지체와 함께 성찬을 나누는 것을 관습화했다. 떡과 포도주를 가운데 두고 지체들이 나와서 성찬을 나누는데, 그것은 예식이라기 보다는 한 몸됨을 확인하고 화해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몇 번이고 다른 지체들과 성찬을 나눌 수 있다.

4.8 호칭 문제

예수촌교회는 '너희는 다 형제니라'라는 말씀을 지체들의 관계에 대한 주님의 정의라고 보고 서로를 '형제/자매'라고 부른다. 우리는 역할과 존재를 구분한다. 역할이 호칭이 되서는 안되며 역할이 형제들 간의 높낮이를 결정해서는 안된다. 역할과 은사의 차이가 형제관계를 앞서면 안된다고 본다.

4.9 말씀묵상과 나눔

말씀묵상은 개별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서로 나누어질 때 공동체가 더 강화되고 성장한다. 예수촌교회는 말씀묵상과 나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처음부터 '매일성경'을 중심으로 모든 지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했다. 설교시에도 말씀묵상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으며, 새벽기도 시간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고을모임에서도 말씀묵상한 것을 나누는 것을 중요한 순서로 삼고 있다.

뿐만아니라, 말씀묵상과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분기당 한 번씩 말씀묵상한 것을 서로 나누는 방법으로 예배를 진행한다. 한 사람이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 지체들이 묵상한 말씀을 전체 지체들에게 나누어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4.10 교회의 분가

예수촌교회는 처음부터 교회의 공동체성, 즉 몸됨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았다. 그래서 공동체성이 약화되는 상태가 되면 교회를 분가하는 것을 교회 비전으로 삼았다. 교회의 분가는 민들레가 흩씨를 보내듯 같은 DNA를 가진 교회들의 확산을 의미한다. 이는 생명 체 성장에 있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교회의 출석 인원수가 80-100여명에 이르자 분가에 대한 필요성이 지체들 사이에 대두되었다.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에 너무 많은 수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2011년부터 리더들을 중심으로 교회 분가 논의를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분가에 관한 논의를 전교회적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그 이후 분가위원회를 조직해 분가의 형태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지체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드디어 2013년 3월에 새로운 리더십을 추가로 세워 2교회(예수마음, 화천예수촌)를 분가시켰다.

분가된 교회들은 분기별로 1회씩 모이고, 각종 행사를 공유하며, 월1회 연합리더십 모임을 갖고 있다.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여 공동으로 사역을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수촌교회는 자원하는 지체들 중심으로 분가를 하게 되면 그 그룹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양한 모임과 활동을 서로 함께 하여 모그룹과의 더 깊은 코이노니아가 가능하도록 관계형태를 정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그렇게 분가한 그룹이 세워지는 것을 다른 지체들이 보고 도전을 받아 더 많은 그룹이 분가에 나서게 될 것을 기대하고 또 그렇게 격려하려 한다.

5. 예수촌교회는 진행중...

90년대 이후 개신교회에서 사람들이 빠져 나가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지탄의 수위가 높아지자 목회자들은 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로 말미암아 목회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다. 먼저는 다시 교회성장을 일으킬 성장프로그램을 찾아다니고 성장한 교회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자는 교회 갱신의 바람이었다. 주로 젊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교회갱신의 바람은 비록 잔잔하지만 조금씩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교회갱신의 움직임이 교회성장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본질과 그 본질을 드러내는 구조, 문화 등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본질이 새포도주인데 현 부대에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인 몸됨을 효율성이나 성장을 위한 실용주의적 시스템에 담는 것은 새포도주를 현 부대에 담는 것과 같다. 교회의 본질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교회의 구조와 틀, 문화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본질에 대한 개념이나 신학은 있되, 본질을 드러내기엔 합당한 틀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교회는 본질에 따라서 자신의 구조를 조정하기 보다는 전통에 근거한 구조와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을 선택했다. 따라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몸됨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지도 못할 뿐만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교회의 본질에 관한 이해는 새신자 성경공부에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교과목에 불과한 것이었다.

하지만 교회의 몸뚱이야 말로 온 교회가 중차대하게 고민하고 함께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본질의 핵심이다.

한 때, 예수촌교회 지체들은 자조적으로 ‘우리 교회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교회’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되는 것이 없다는 말은 의사 결정 과정이 느리고 때로는 진행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다. 안되는 것도 없다는 말은 그것이 성경적이라면 어떤 것도 그것을 제한하지 않으며, 함께 한 결정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때문이었다.

17년 동안의 예수촌의 걸음이 이제 좀 쉬어도 될 만큼 성숙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약교회의 원리를 향한 고민과 싸움이 더 치열해졌다고 말할 수 있다. 기존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지체의 유입,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우리 안의 게으름, 현재의 시스템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의 개혁이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들, 처음엔 새로운 것 같았으나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신약교회의 원리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들, 현재의 관계망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마음들과도 싸워야 한다. 예수촌교회가 교회의 분가라는 구조적 변화를 선택한 것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있는 이러한 경향들이 계속 커지게 놔두지 않겠다는 결단의 선택이었다.

예수촌교회는 그 누구에게도 ‘우리가 정답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발견한 그 원리에 충실하고자 했을 뿐이며 그것에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교회구조와 문화를 선택했을 뿐이다. 재세례파가 하나의 구조나 한 사람의 운동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듯이, 한국교회의 갱신 운동도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란다. 본질에 더 적합한 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배우고자 하며, 그러한 움직임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예수촌교회는 신약교회의 원리를 어떻게 교회 속에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촌 교회는 개혁된 교회 (reformed church)가 아니라 개혁중 (reforming church)인 교회이다. 예수촌교회는 계속 진행중이다….

자료 1 /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했던 서적들.

- 1.참으로 해방된 평신도, 폴 스티븐스, IVP.
- 2.새포도주는 새부대에, 하워드 스나이더, 생명의 말씀사.
- 3.제자입니까?,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즈, 두란노.
- 4.그리스도의 지체, 레이 스테더먼, 생명의 말씀사.
- 5.기억 상실증에 걸린 교회, 마이클 그리피스, IVP.
- 6.그리스도의 공동체, 하워드 스나이더, 생명의 말씀사.
- 7.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 존 드라이버, 무실.
- 8.가정 소그룹모임, 론 투르딩거, 기독교문서선교회.
- 9.예수는 어떤 공동체를 원했나, G. 로핑크, 분도출판사.
- 10.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 존 스토틀, IVP.
- 11.순례하는 교회, 부로우드벤트, 전도출판사.
- 12.교회란 무엇인가?, 한스 쿡, 분도출판사.
- 13.모든 신자를 제자로 삼는 교회, 빌 헐, 요단출판사.
- 14.바울의 사상 그리스도인 공동체, 로버트 뱅크스, 여수론.
- 15.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박철수, 좁은문.

- 16.바람직한 교회 형태, 옥한음, 엠마오.
- 17.당신의 교회생활 전통적인가? 성경적인가?, 에드먼트 크라우니, 나침반.
- 18.세계의 예수 공동체, 도날드 블뢰쉬, 무실.
- 19.21세기 교회의 전망, 하워드 스나이더, 아가페.
- 20.평신도 사역, 로렌스 리차드.길버트 마틴, 평신도신학연구소.
- 21.참된 예배, 존 맥아더, 두란노.
- 22.1세기 교회의 예배 모습, 로버트 बैं크스, 여수론.
- 23.뒤틀려진 기독교, 자크 엘룰, 대장간.
- 24.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로버트 소시, 생명의 말씀사.
- 25.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폴 스티븐스, IVP.
- 26.성령의 은사와 교회성장, 피터 와그너, 생명의 말씀사.
- 27.소그룹 운동과 교회성장, 론 니콜라스, IVP.
- 28.평신도 신학, 핸드릭 크래머, 대한기독교서회.
- 29.교회의 진정한 표상, 데이브 왓슨, 여수론.
- 30.신약신학-교회.성경, 도날드 거스리, 성서 유니온.
- 31.개혁신학이란 무엇인가?, 김영한, IVP.
- 32.주님의 제자 훈련 계획, 로버트 콜만, 두란노서원.
- 33.영적 성장을 위한 제자 훈련, 리차드 포스터, 보이시스.
- 34.복음과 우리 시대의 교회, 그레고리 루이스, 양무리서원.
- 35.목회 방법이 거듭나야 합니다, 존 무어.켄 네프, 나침반.
36.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직 알렉산더 스트라우스, 전도출판
37. 모이는 교회 흠어지는 교회
- 38.교회 어떻게 새로워져야하나, 이평소, 대장간.
- 39.평범한 사람들의 별난교회, 이남하, 나침반.
- 40.구역조직을 가정교회로 바꾸라, 최영기, 나침반.
- 41.하나님의 나라, 존 브라이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42.Restoration in the Church, Terry Virgo, Cityhill.
- 43.평신도를 세우는 목회자, 폴 스티븐스.필 콜린스, 미션월드.
- 44.재침례교도의 역사, 윌리엄 에스텝, 요단출판사.
- 45.좁은 길, 윌리엄 니콜스, 기독교문서선교회.
- 46.새들백교회 이야기, 릭 워렌, 도서출판 디모데.
- 47.개혁자들의 신학, 티모디 조지, 요단출판사.
- 48.현대인의 생활 영성, 폴 스티븐스, IVP.
49. 영성의 길, 헨리 누헨,
50.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로날드 사이더,
51. 공동체 제자도, 하인리히 아놀드, 쉐터
52. 교회. 에드먼드 클라우니, IVP
53. 이것이 교회다. 찰스 콜슨 흥성사
54.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메노나이트, KAP
55.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커, IVP
56. 기도, 리차드 포스터, 두란노
57. 다시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옥한음
58. 하나님의 열심, 박영선
59. 내가 공동체로 사는 이유. 하인리히 아놀드,
60. 건강한 교회의 8가지 특징. 크리스찬 슈발츠,NCD

자료 2 / 주일예배 담당순서표(2012년 9월-11월)

* 매 주일 사회자는 예배위원에게 미리 연락을 하셔서 점검하시고,
예배위원들은 금요심야기도 후에 잠시 모여서 준비 확인 바람.

날짜	인도	설교	기도	특송	성경 봉독	유치부	밥풀이	설거지	교회청소 금요기도회	행사 및 모임/ *중고등부 프로그램
9/2	김경중	김태민/ 양계령	임연수/ 임양순	김세하	백현영	-	윤병일	남상욱/ 홍대위	사랑	확대모임 멸씀사경회
9	백정하	박중렬/ 윤병일	김민하/ 박향란	-	김지혜	-	김일환	정배동/ 김창식	화평	
16	홍광진	안동규/ 고효실	송희연/ 김영숙	-	장승우	-	-	-	희락	성찬(김밥)
23	김태민	차성도/ 백정하	백현규/ 김은경	중창팀	정재은	-	박중렬	안동규/ 차진성	소망/충성	
30	-	-	-	-	-	-	-	-	-	고을예배 나눔의 동산(사랑)/ 교회지킴이(화평)
10/7	차성도	정혜란/ 황수진	노성호/ 박은수	-	-	-	-	-	사랑	추수감사예배
14	이발희	김일환/ 안경모	홍대진/ 홍광진	POP	오민주	-	임성규	홍광진/ 김태민	화평	
21	이미경	김태민/ 최선녀	박진주/ 최현주	-	백선영	-	-	-	희락	성찬(김밥)
28	-	남상욱/ 박혜영	한소희/ 이정남	중고등 부	장승우	-	김경중	차성도/ 박중렬	소망/충성	중고등부주관예배
11/4	김태민	차성도/ 정수경	임지홍/ 김아영	-	김지혜	-	임영석	백정하/ 임영석	사랑	확대모임
11	백정하	큐티나 눔/ 정배동	김상하/ 윤병일	김아영	백현영	-	홍광진	임성규/ 김일환	화평	
18	차성도	김경중/ 이정남	남지인/ 박혜영	-	정재은	-	-	-	희락	성찬(김밥)
25	-	-	-	-	-	-	-	-	소망/충성	고을예배 나눔의 동산(화평) 교회지킴이(희락)

*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경이 있을 시엔 김영희 자매님이나 김태민 형제님에게 연락바람.

청년, 교회개혁을 말하다 }

이진오 목사 | 더함공동체교회

1. 교회란 무엇인가?

- 진실한 공동체
- 일상의 삶에서의 제자도

2. 한국교회의 현실

-2005년 종교인구 분포: 불교: 22.8%, 개신교 18.3%, 가톨릭 10.9%, 비종교 46.9%

-종교인구 변화: 1985->1995->2005

->불 교: 19.9%(8,059,624)->23.2%(10,321,012)->22.8%(10,726,463)

->개신교: 16%(6,489,282)->19.7%(8,760,336)->18.3%(8,616,438)

->가톨릭: 4.6%(1,865,397)->6.7%(2,950,730)->10.9%(5,146,147)

->개신교는 수도권, 특히 강남3구 강세,

->10년 간 10대 30만, 20대 40만, 30대 30만 감소

-국회의원 개신교 분포: 18대 40.1%, 19대 37%

->19대 각 정당 공천자 547명 중 : 개신교 41.9%, 가톨릭 21.8%, 불교 13.9%

-국가/친미/반공/자본

-지도적 목회자와 교회들의 부패와 타락 : 세습, 횡령, 성범죄 등

3. 청년들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말씀, 성경 : 살전2:13, 행17:11

-해적선의 착한해적 이야기

-선한 사마리아인의 딜레마

4. 개혁교회네트워크와 청년모임

-개혁교회네트워크는?

개혁교회네트워크를 소개합니다!

개혁교회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교회 간 연합기구로서 2005년 10월 30일 설립되었습니다. 네트워크는 설립 이후 회원교회 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을 전개하고, 교회개혁 시민 단체를 지원 협력하며, 건강한 작은 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또, 네트워크는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과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네트워크는 교회 간 공동체적 나눔의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앞당기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활동해 나갑니다.

■ 목적과 성격

○ 목적

- 회원교회간 유대강화 및 협력사역
- 교회개혁사업 협력 및 지원
- 개 교회의 건강성 회복을 위한 활동

○ 성격

- 개교회의 자율성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 회원교회의 확장을 통해 개혁교회 진영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교회 연합
- 개혁교회모델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교회 연합
- 개교회주의를 넘은 협력사역의 시범을 위한 교회 연합
- 목회자와 일반신도의 협력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 주요사업

- 친목사업: 체육대회, 야유회, 합창대회, 연합수련회
- 교육사업: 종교개혁기념세미나, 건강한 교회세미나
- 사회복지사업: 시설봉사, 사회복지지원, 건강한 소비조장
- 시민단체지원사업: 교회개혁 관련 기독교시민단체 지원
- 기타 대표자 회의에서 정하는 사업

■ 회원교회/단체(2013.9. 현재)

- 회원교회: 교회다움(청량리, 민길), 너머서교회(일산, 안해용), 더함공동체교회(인천, 이진오)
디딤돌교회(송파, 윤선주), 무지개교회(명동, 박성진), 새들녘교회(오금동, 박태순)
새맘교회(영등포, 박득훈), 아름다운양지교회(서산, 조석장), 예인교회(부천, 정성규)
언덕교회(강남, 박창훈), 징검다리교회(검단, 유인환), 함께여는교회(종로, 방인성)
- 회원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종운, 방인성, 백종국)

■ 홈페이지 및 연락처

○홈페이지: <http://cafe.daum.net/reformingchurch>

○연락처: 운영위원장 오재은 장로 kairos512@hanmail.net 010-3293-3392

총무 나종삼 집사 03book@naver.com 016-253-3254

개혁교회네트워크 회원 교회/단체 소개

교회다움

<http://cafe.daum.net/churchdaum>

서울 청량리

목사: 민 걸

교회다움은... [교회다운 교회]를 지향합니다. 성도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의 의도에 맞는 교회입니다. 교회다움은... [에베소교회 모델]을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주로 선교와 양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교회] 모델을 지향합니다.

너머서교회는 2008년 3월 30일에 설립되어 현재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풍산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신앙공동체로서 너머서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어: “차별을 넘어 차이를 인정하는 교회” (갈3:28~29)

너머서교회

www.beyondchurch.or.kr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338-2 너머서 꿈터

031-917-1209

목사: 안해용 운영위원장: 최상원

더함공동체교회

www.withplus.org

인천 남구 주안동 196-17 정명B/D 2층/지층

목사: 이진오 운영위원장: 김영관

사명

우리의 사명은 더불어 함께하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를 이루고, 지역과 시대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며,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핵심가치

단순함(simple) 작음(small) 더불어 함께(with)

디딤돌교회 사명선언문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강성을 회복하며, 부흥을 이끄는 성령의 역사와 막힌 답을 허무는 소통과 연대로써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널리 확장해간다.

Didimer 7가지 정신 : Disciple (예수그리스도의 제자), Identity (자기정체성 인식), Doer (행동하는 사람), Innovation (혁신), Membership (공동체일원 의식), Evangelism (복음 전파), Ready (준비)

디딤돌교회

www.didimer.net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
시각장애인 복지관 5층 강당
목사: 윤선주

무지개교회

<http://rainbowchurch.kr>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폭포동 403동 1602호
010-3214-8394
목사: 박성진

언약을 상징하는 무지개(언약과 생명), 비온 뒤에 나타나는 무지개(고난과 헌신), 그러나 화려함을 뒤로 한 채 어느새 사라져버리는 무지개(무소유와 용기),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색깔 이어야만 하는 무지개(연합과 소통).

무지개교회의 사명

무지개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자리매김 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되려합니다.

사명 및 비전

〈건강한 교회, 바른 그리스도인, 아름다운 사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실행 요소와 11가지 실천 지침을 정하였습니다.

1.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 예배와 복음 전파를 실천하는 교회,
2. 모든 성도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교회,
3.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독교 사회참여를 실천하는 교회,
4. 교회의 건강과 사회의 행복을 위하여 '사람'을 키우는 교회

새들넉교회

sdnchurch.onmam.com

서울 송파구 오금동 44
현대아파트 상가
목사: 박태순 전도사: 강병욱

새맘교회

<http://cafe.daum.net/semam201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 2-4번지 B1
목사: 박득훈 운영위원장: 이원희
교인총회의장: 김광원

우리 교회는 예배, 성도의 교제, 제자훈련 그리고 선교를 통해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1.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
2.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귄과 나눔을 실천하는 친밀한 예배 공동체
3. 세상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가는 선교 공동체

성경본문을 설교하는 교회, 민주적 운영을 시행하는 교회, 교회개혁운동에 동참하는 교회,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

교회의 외면적 성장보다는 내면적 성숙을 지향합니다. 우리는 제자훈련을 통하여, 모든 평신도를 예수님의 동역자로, 소그룹을 통하여,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가족공동체로, 선교참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넓혀가는 선교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름다운 양지교회

<http://cafe.daum.net/asan-church>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중 입구)
목사: 조석장

언덕교회

www.unduk.or.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187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1층 강당
목사: 박창훈/박종현 운영위원장:오재은

"건강한 교회, 일하는 교회"라는 목표 아래, 다음 4가지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1. 모든 삶의 영역에서 드리는 참 예배를 실천하는 교회
2. 성경에 기초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교회
3.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교회
4. 한국교회의 건강회복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운영은 민주적으로, 소유는 최소한, 나눔은 최대한”을 모토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설립 11주년을 맞아 ‘더작은교회’를 형제교회로 분립했습니다. 2013년 10월 현재, 어린이 포함 300여명의 성도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성도중심의 교회, 민주적 운영, 아둘람같은 도시공동체, 최소한 소유의 원칙, 분립, 투명한 재정 운영, 이런 교회 다니고 싶다 세미나,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한 연합활동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인교회

www.yein.org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복사골문화센터 5층
목사: 정성규

징검다리 교회

<http://cafe.daum.net/mogja>
인천시 서구 검단로 837-22
032-563-0191
목사: 유인환

1. 상식이 통하는 교회
 2. 개혁교회의 전통을 따라 끝없이 개혁하는 교회
 3. 교회를 내세우기 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4. 경청과 공감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교회
- 우리의 실천적 운동

1. 건물을 소유하지 않는다.
2. 목회와 운영을 목회자와 평신도가 분리하여 맡는다.
3. 장년 교인 150명이 되면 분립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이 땅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참여하는 것
을 목적으로 모였습니다.

1.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힘쓰는 교회
2. 섬김과 사랑의 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동체
3.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삶을 사는 성도

함께여는교회

www.opentogether.org

서울 종로구 관철동 38-1

종로파고다타워 지하2층 이벤트홀
02-743-4113

목사: 방인성 교인총회의장: 김경동

운영위원장: 박명욱

교회개혁 실천연대

www.protest2002.org

02-741-2793

공동대표: 박중운, 방인성, 백종국

교회개혁실천연대는 뜻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에
의해 2002년 11월 24일 창립된 단체입니다.

1. 한국교회의 개혁과 건강한 교회를 통한 사회개
혁을 일구어냄으로 하나님나라를 펼쳐가고자 합니
다.
2.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신앙운동
3. 한국교회에 발생하는 중대한 문제를 사랑으로
지적하는 비판운동
4. 한국교회의 건강한 구조 확
립을 위한 교회대안제시
5.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일꾼을 양성하는 교육

초대합니다!

제8회 이룬교회다니고싶다 세미나

후속 특별강좌

목회자와 교회로 부터 상처를 받았든, 목회자와 교회에 대해 실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할 신학, 운영에 대해 심도있게 강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 고민이며 우리의 사랑인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함께 대화할 분들을 초청합니다.

일시 | 2013. 11. 6(수)~ 11. 27(수) 오후 8시 (매주 수요일, 4주간)

장소 | 더함공동체교회

비용 | 무료

강사 | 이진오 목사

강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내용	교회란 무엇인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1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2	어떤 작은교회인가?

※ 아래의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행사 안내자(안네티셔츠 착용) 혹은 더함공동체교회 부스에 전달해주시면
강의 안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절 취 선

<p>환영합니다!</p> <p>제8회 이룬교회다니고싶다 세미나</p>		<p>후속 특별강좌 참가신청서</p>
이름		
연락처	E-mail	@
	휴대전화	

행사장 안내도

